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IRS

JANUARY+FEBRUARY



2025 vol.70

SPECIAL THEME Book Hip **LIFE &** 사프란 향 가득한 오스만튀르크 유적지, 튀르키예 사프란블루
SENIOR+ 이심전심 춘천 **WEALTH &**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독주

아시아뱅크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WEALTH & SOCIETY 2024

BEST PRIVATE BANK IN SOUTH KOREA



January and February

Happy New Year

〈TWO CHAIRS〉 1+2월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작가의 노벨상 문학수상과 함께 관심이 급증한 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 읽기뿐 아니라 책과 관련된 아이템으로까지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장 가치가 있는 책 시리즈와 책 관련 굿즈, 개성 있는 북 페어도 소개합니다.

더불어 달라진 편의점 트렌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화제의 전시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소개 내용도 담았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복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JANUARY+FEBRUARY
2025 vol.70



05 Special Theme

06 INTRO

No Book, No Life

08 VIEW

그 출판사, 그 시리즈

12 FESTIVAL

읽을 준비, 즐길 준비 끝!
Welcome to the Book Festival

18 ITEMS

책보다 굿즈



COVER STORY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을 읽는 행위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책과 관련해 관심 가져볼만한 다양한 트렌드를 소개한다.



21 Life &

22 TRAVEL ▶

튀르키예 사프란볼루

30 ART

호방한 붓질 사이로 빛나는
섬세한 가치, 한국화가 류재춘

34 EXHIBITION

전통을 거부한 예술가들 새로운
시대를 호명하다

40 ARCHITECT

스뇌헤타 건축 스튜디오

46 STAY

Josun Palace, a Luxury Collection
Hotel, Seoul Gangnam

50 WHAT'S HOT

MZ세대가 향한 곳은 어디?
편의점은 무한 변신 중

54 CURATION

아직도 뉴스레터 구독 안 하시나요?

58 CLASSIC STORY

오케스트라가 오보에 A음으로
조율하는 까닭은?



61 Senior &

62 LOCAL TOUR

이심전심 춘천

68 SIGNATURE HOLE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72 GOLF LESSON ▶

백현범 프로의 원 포인트 레슨

76 SPACE

오늘 '고급' 와인 한잔?

80 RECIPE

식사의 즐거움을 더하는 와인
마리아주

86 DRINK

모르면 서운할 술
Brend New Liquor

88 HEALTH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른 근육,
이제는 근테크 시대



93 Wealth &

94 INVESTMENT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독주

98 REAL ESTATE

서울 부자를 통해 알아본
2025 주택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102 TAX STORY

다른 소득이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

108 ADVISOR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
'이것' 빠지면 무효

112 READERS LETTER

▶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한국경제매거진(주)

발행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호 제10권 제1호(통권 제70호)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772672 066004
ISSN 2672-0663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SPECIAL



Book Hip

텍스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어느샌가 ‘책을 읽는 것’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힙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에 재미를 더할 숨은 명작 시리즈와 이벤트 등을 소개합니다.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어금고 서비스, 사크링뱅크 서비스, 해외 유학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상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158(2024.04.02~2025.03.31)

No No

Book, Life

왜 끊임없이 읽고 사유하며 살아야 할까.
여기 그답들이 있다.

Writer: 유나리 Photo: 언스플래시, 게티이미지뱅크



책이라는 창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작가 찰리앵 그린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작가 한강



소설을 읽는 것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다.
그 수수께끼들은 예외 없이
삶의 수수께끼다.

-작가 찬쎬



인간이 자연에서 거저 얻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책이라는 세계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

책 속에는 과거의 모든 영혼이
가로누워 있다.

-비평가 토머스 칼라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사람이다.

-작가 새뮤얼 버틀러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해서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소설은 듣고, 보고, 의심하고,
상상하고,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독자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기자 작가 플로랑스 누아빌



위대한 소설에서 발산되는 빛은 결코 흐릿해질 수 없다.
인간 존재는 시간 속에서 인간에 의해 영원히 잊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소설가들의 발견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다.

-작가 밀란 쿤데라

큰 도서관은
인류의 일기장과 같다.

-작가 헨리 G. 위도슨

책 속에서 지식을 얻고자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지식밖에는 못 얻었다.

-작가 장정일

그 출판사, 그 시리즈

출판사마다 이름을 걸고 만드는 각종 시리즈물은 고유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두고 보면 좋은 국내 대표 출판사의 문제적 전집 시리즈 7선.

Writer: 유나리 Photo: 각 출판사, 게티이미지뱅크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에세이 '아무튼, OO' 시리즈

위고, 제철소, 코난박스 세 출판사가 함께 하나의 시리즈를 만드는 전례 없는 독특한 에세이 시리즈.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피난처가 되는, 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라는 질문 아래 탄생한 이 시리즈의 동그란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2017년 9월 <아무튼, 피트니스>를 시작으로 최근인 2024년 12월 출간한 <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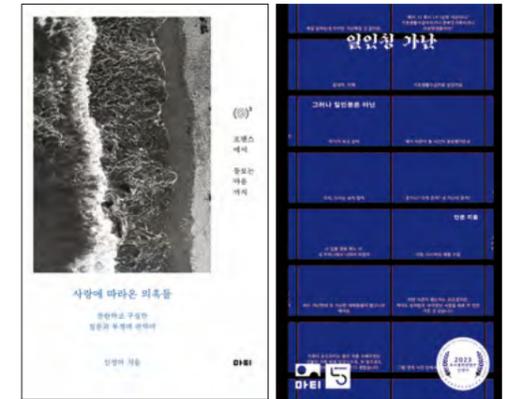
튼, 뉴욕>까지 72권을 내놨다. 70권이 넘다 보니 주제도 취미나 취향(피트니스, 스릴러, 보드게임, 디지몬, 미드, SF 게임, 라디오, 식물, 요가, 문구, 후드 티, 클래식)부터 장소(뉴욕, 망원동, 현수동), 삶의 가치나 방식(메모, 정리, 친구, 비건), 짝어볼 만한 사회적 현상(예능, 언니, 반려병, 사투리) 등 "아니, 이런 걸로도 책을 쓸 수 있다고?" 싶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주제에 맞는 필자와 독특한 일러스트,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 160쪽가량의 가벼움으로 책 한번 읽는 데 큰 다짐이 필요한 독자의 진입 장벽을 최대한 깬다. 시리즈물을 쓱 훑어보고 관심 있는 주제의 '아무튼, OO'을 집어 아무 곳이나 두고 손에 잡힐 때마다 읽으면 된다.

이 작고 귀여운 에세이 시리즈가 응원하는 건 결국 사소해 보여도 나를 나 자신에게 하는 것, 거대한 담론이나 서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내는 각자의 삶이 있다.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작은 것을 응원하는 작지만 강한, 전례 없는 시리즈물이다. 사회가 어떻게 판단하건 나의 작고 소중한 것들과 함께 행복하리! 아무튼, 우리는 그러하겠다는 옹골찬 외침이 시리즈 가득 들어차 있다.



이 시대, 우리의 좌표 찾기 마티의 '옛', '온' 시리즈

영어에서 '옛at'이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라는 점을 떠올리면 마티의 '옛at' 시리즈를 이해하기 쉽다. 옛은 '이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리즈다. 여성/남성, 피억압자/억압자, 빈자/부자, 장애인/비장애인까지, 사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티는 특히 권력 바깥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탈주해 이 사회를 곳곳하게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옛'의 첫 번째 책이 <마이너 필링스>라는 것은 이 시리즈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마이너리티' 혹은 소수적 감성 정도로 해석되는 <마이너 필링스>는 백인 위주의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 여성으로 살아온 캐시 홍 작가가 당한 지난한 차별 속에서 피어난 일정의 우울함과 짜증 등의 감정을 담는다. 작가는 이 정서 안에서 생겨난 상처를 글로 쓰며 자신과 사회의 현주소를 정의한다. '옛'은 현재 <마이너 필링스> 외에 <젊고 아픈 여자들>,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몸 번역하기>까지 4권이 나왔다.



'온on'은 '~에 대해'라는 뜻답게 그보다 폭넓고 유연한 다양한 주제를 종횡한다. 정지돈 작가의 <스페이스(는)픽션>을 시작으로, 도서관 여행자의 <도서관은 살아 있다>, 조명받지 못하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가난한 삶에 관해 쓴 <일인칭 가난>, 26년간 타국 생활을 하는 번역가가 떠남과 머무름을 반복하며 타인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바꾸는 일을 하며 사회와 자신을 이해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작가, 피정> 등 현재까지 7권이 나왔다. 무엇보다 읽기 편한 크기와 무게, 주제를 다루는 감각적인 표지 디자인까지 만듦새도 훌륭하다.

한국 공포의 현재 황금가지의 '중편들, 한국 공포 문학의 밤'

좋은 장르 문학 소설을 꾸준히 선보이는 황금가지가 내놓은 이 시대의 우리 공포 문학 작품선. 한국적 색채가 강한 공포 장르에 SF, 스릴러,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가 접목된 한국 공포 문학 중편선 시리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을 테마로 모은 7권짜리 공포 문학 단행본이다. 이 중 4편은 온라인 소설 플랫폼 브릿G의 작가 프로젝트에 응모한 50편 중 선별한 것으로 참신한 우리나라 공포 문학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단편과 장편 사이인 중편은 긴 소설 읽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쉽게 읽히며, 호흡이 짧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편보다 몰입해 읽을 수 있다.

공포나 스릴러 등 특정 장르의 소설은 손이 가지 않는다거나,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의심을 거두고 읽어볼 것.



이렇게 다양한 소설의 세계 은행나무 '시리즈 N', '에세', '환상하는 여자들' 시리즈

믿고 읽는 소설 맛집, 은행나무에서도 여러 개의 시리즈를 낸다. 그중 '시리즈 N'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나온 총 13권의 노벨라 시리즈를 새롭게 부활한 2024년 버전이다. 노벨라는 30~40대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군의 중편소설을 모은 시리즈물. 1970년대 획기적인 인기를 모은 삼중당 문고의 현대 버전이다. 시리즈 재개를 맞아 기획 의도에 맞는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추가해 박문영 작가의 <허니비>, 황모과의 <서브플롯>, 장진영의 <취미는 사생활>을 새로 펴냈다.

'에세' 시리즈는 서구 남성의 시각 중심으로 정립된 기존 문학 전집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발굴한 세계문학 전집이다. 고전 페미니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부터 아시아 여성 작가로 세계문학의 최전선에 선 찬쉴레, 다와나 요코 등 다양한 언어권 작가를 아우른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가라도 대표작과 결이 다른 개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최대한 다른 출판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작품, 국내 미번역된 작품을 위주로 선정해 새로운 소설에 목마



른 사람을 만족시킨다. 우리가 그간 알던 천편일률적인 세계문학 시리즈가 아닌, 현대 세계문학의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환상하는 여자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해외 여성 작가의 작품 중 기이하고 아름다운 환상으로 현실을 비추는 작품만 엄선한 시리즈다. 첫 권은 2022년 전미도서상 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신인 작가 테스 건티의 <우주의 알>. 멕시코 작가 브렌다 로사노의 <마녀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에스더 이의 <Y/N>, 스페인 작가 라일라 마르티네스의 <나무쭈>까지 총 4권이 출간됐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생각들 휴머니스트의 '곰곰문고'

'곰곰문고'는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물. '곰곰이 들여다봐야 만날 수 있는 가치, 세상과 나를 잇는 새로운 생각'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2021년 <쇼핑의 미래는 누가 디자인할까?>를 시작으로 노동권, 소비, 비건, 역사, 탄소 중립, 의학 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하고 고민해봐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싶은 어른까지, 적절한 인문서를 찾고 있다면 추천한다.



최근 출간한 <지붕 뚫고 홈런 스포츠 과학>을 비롯해 총 31권이 출간됐다.

지금 꼭 필요한 철학 입문서 까치글방의 '오늘을 비추는 사색' 시리즈

국내에 다양한 인문·사회·자연과학 명저를 소개하는 출판사, 까치글방에서 고맙게도 철학 입문서를 내놨다. '오늘을 비추는 사색' 시리즈는 장 자크 루소, 미셸 푸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에리히 프롬, 해나 아렌트, 카를 마르크스 등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가 6명의 대표적 이론을 담았다. 푸코가 1970년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한 강의와 그의 저서를 토대로 그가 평생 주장한 권력, 통치에 대한 이론을 짚고,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얽매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단초를 준다. 지금 다시 이들이 소환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 자유의지, 자본, 욕망, 휴머니즘 등 21세기에도 여전히 요원하고 희미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실히 가다듬기 위함이다. 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좋은 시리즈다.



젊어진 이시대의 인문 총서 민음사의 '탐구' 시리즈

멀게만 느껴졌던 인문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다가가려는 올바른 시도로 만들어진 시리즈. 학술서와 대중서라는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좋은 사례로 읽어볼 만하다. 민음사의 인문 총서 '탐구' 시리즈는 일상에서 한 번쯤 느꼈을 법한, 혹은 느껴야 마땅한 '요즘' 화두를 다룬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터넷 콘텐츠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지? 이런 문제

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20대 비평가 윤아람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뭔가 배 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을 통해 현재 동시대 문화 현상과 그 이면의 의미를 탐구한다. 페미니즘과 과학의 문제를 탐구한 과학기술자 임소연의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정치가 삶에서 왜 중요한지를 찬찬히 설명하는 <우리를 바꾸는 우리>, 쏟아지는 온라인 홍수 속에서 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개선할 점 등을 고찰한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등 시의적절한 주제가 가득하다. ☹



읽을 준비, 즐길 준비 끝!

Welcome to the Book Festival

책은 꼭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광장으로 나온 책의 힘과 매력은 더 거세다. 누구나 슬렁슬렁 둘러보기 좋은 책 축제부터 업계 최신 트렌드와 동향을 알 수 있는 출판계 행사까지, 책 축제는 지금 성황리에 개최 중이다! 책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외 도서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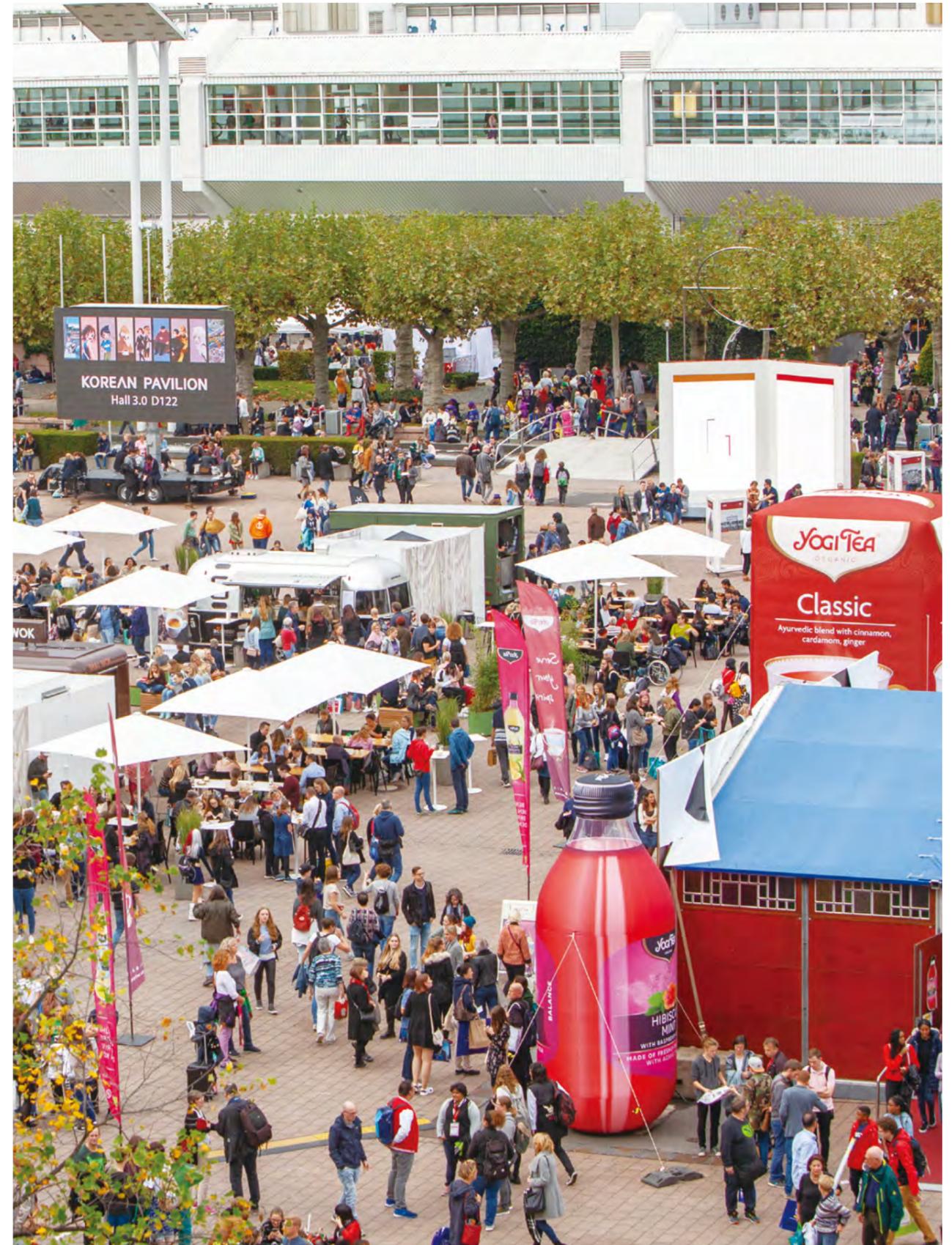
Writer: 유나리 Photo: 각 축제, 한경 DB

세계 최대의 책 축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Frankfurter Buchmesse

매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아인(Frankfurt am Main)에서 5일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축제. 해마다 100여 개국 7,5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석한다. 출판업자는 물론 작가, 번역가, 인쇄업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책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모이는 주요 축제다. 런던 국제도서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과 함께 세계 3대 도서전으로 꼽힌다. 왜 독일 프랑크푸르트일까. 15세기에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마인츠(Mainz)에서 구텐베르크(Gutenberg)가 유럽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 서구 사회 전체로 퍼지며 지식은 파급력을 갖게 됐다. 독일은 자연스럽게 인쇄술, 책, 지식의 중심지가 됐다. 그 명맥을 이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출판계 주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도서전은 매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주빈국으로 정해 특별 전시, 낭독회, 공연 등으로 해당국의 문화와 문화를 소개한다. 2024년에는 이탈리아를 주빈국으로 '읽고, 반영하고,

언급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FBM is Reading-Read. Reflect. Relate"라는 슬로건 아래 우쿠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 위기 등 현재를 관통하는 주제를 다루며 독서를 통해 현실을 비추고, 목소리를 내며 연결점을 만들었다. 올해엔 필리핀이 주빈국으로 'The imagination peoples the air(상상력이 공기를 채운다)'라는 모토 아래 7,641개의 부속 점과 183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나라인 필리핀의 역동적인 문학 세계를 조명한다. 10월 15~19일 개최 예정.

www.buchmesse.de



세계 출판인이 만나는 업계 최고의 장
런던 도서전
The London Book Fair

1971년 시작된 또 하나의 주요 도서전. 매년 상반기 3월경에 개최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업계 관련자와 일반 관객을 맞는 것과 달리 런던 도서전은 출판업계 종사자, 기업 간의 저작권 거래에 집중한다. 하여 보다 출판업계 변화와 트렌드를 기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 2024년엔 인공지능^{AI}이 출판업계에 미친 영향과 변화 등이 주요 이슈였다. 그만큼 변화하는 출판업계가 주목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서전은 이를 반영해 매해 성인 소설, 국제 작가, 아동작가, 제작자 등을 꼽는다. 이들을 주목하자. 올해 런던 도서전은 '오늘의 작가'에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2024년 여성 소설상 심사위원장인 모니카 알리^{Monica Ali}를 '오늘의 성

인 작가'로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국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클라우디아 피네이로^{Claudia Piñeiro}를 '오늘의 국제 작가'로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Frank Cottrell-Boyce}를 '오늘의 아동작가'로 만화가 제이미 스마트^{Jamie Smart}를 도서전 크리에이터로 선정했다.

여담으로, 우리에게 런던 도서전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2014년 런던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되며 한국 문학 번역자를 모집하던 중 번역자 데버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샘플을 현지 출판사에 보냈고, 영문으로 번역돼 2016년 맨부커상 수상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맨부커상 수상 이후 전 세계가 한강의 작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데버라 스미스는 한강을 세계에 알린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올해 런던 도서전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올림피아 런던^{Olympia London}에서 개최된다.

www.londonbookfair.co.uk



세계 최대의 어린이 책 전시회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Bologna Children Book Fair

1967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 최대의 아동도서전. 매년 80여 개국, 1,500여 개 출판사와 멀티미디어 업체 등이 참가한다. 책이 주로 문자를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소통 수단이라면, 아동 도서는 그림과 글이 함께 전인차 구실을 한다. 그만큼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의 핵심 프로그램은 바로 일러스트 원화전이다. 매년 3,000명이 넘는 예술가가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수상을 꿈꾸며 참가할 만큼 세계적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 이 외에도 출판작 중 작품성이 우수한 책을 창의력, 교육적 가치, 예술적 디자인을 기준으로 픽션, 논픽션, 혁신적 작품인 뉴 허라이즌, 신인 작가에게 주는 오페라 프리마 등 네 부분으로 나눠 라가치상을 수여한다. 라가치상은 아동문학계에서 노벨상에 버금갈 정도다. 지난 2024년에는 오페



라 프리마 부문에 한국 최연주 작가의 <모 이야기>가 선정됐다. 이 도서전을 통해 주목받게 된 한국 작가도 많다. 2005년 <구름빵>으로 수상한 백희나, 2022년 <여름이 온다>로 수상한 이수지, <커다란 손>의 최덕규 작가 등이 있다. 올해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된다.

www.bolognachildrenbookfair.com

국내 최대 규모 책 축제
서울국제도서전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서울국제도서전은 1947년 교육 박람회에서 연 작은 도서 전시를 시작으로, 해방 직후 혼란기에 한글로 된 책을 보급해 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려는 의지로 1954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했다.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국내 최대의 책 축제다. 혼란의 시대, '책'과 '언어'가 왜 꼭 필요한지, 책이 시대를 거둬야만 하는 까닭을 보여준다.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 주요한 국제 행사로 거듭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매해 테마를 정해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 등을 구성하는데, 2024년 주제는 '후이름'.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만나는 종족의 이름으로 인간의 어두운 면이 없다. 후이름 같은 존재가 된다면 이 세계의 혼란과 상처가 봉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도서전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지도'를 제시한다. 물론 이런 거창한 주제 의식 없이도 책을 좋아한다면, 무형의 지식과 에너지가 오가는 장을 원한다면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다. 매해 도서전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신간 발표 코너, 특별 한정판 기획 도서 등이 있어 애서가, 수집가의 가슴은 몹시 떨 듯. 올해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A & B1홀에서 열린다.

sibf.or.kr



아시아의 볼로냐 꿈꾸는 국내 최대 어린이 책 놀이터
부산국제아동도서전
Busan International Children's Book Fair

2024년 처음 시작한 국내 아동 도서전. 지난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첫 회지만 5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며 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같은 행사가 출판사와 작가의 저작권 거래 등 '산업' 측면에 집중하는 행사인 것과 달리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철저하게 '아동'이 주인공인 행사로 진행됐다. 도서전 주제는 '라퓨타-한다, 어린이'. '라퓨타'는 300년 전 걸리버가 여행길에 닿은 날아다니는 섬. 어린이들 스스로 행동해 라퓨타를 찾아내는 길을 책을 통해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문턱 없는 거대한 도서관 같은 책 축제에는 신작 <해피버쓰데이>를 들고 온 백희나 작가, 이수지·차호윤 등 국내 대표 아동 도서 작가들이 참가했고, 2022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힌 줄리아 파스토리노 작가, 2021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 픽션 부문 대상을 받은 대만의 린렌언, 스위스 아동문학가 다비드 칼리 등 쟁쟁한 작가들이 찾아 독자와 만났다. 올해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bicbf.or.kr



책의 도시, 전주의 발랄한 책보부상
전주책페어

'책페어'는 과거 책을 파는 상인을 부르던 말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엔 책페어가 단순히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홍보하고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 역할까지 맡았다. '전주책페어'는 '책의 도시' 전주에서 2024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전주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개최된 독립출판 도서 박람회. 전국의 창작자와 독립출판사, 독립서점 등 89팀의 독립출판인이 모여 판매와 전시, 강연 등을 하며 독립출판 축제의 자리를 만들었다.

왜 지금 독립출판일까? 독립출판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 등이 기획부터 편집, 인쇄, 제본까지 도맡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주제와 형식의 제약이 적고 독특한 주제와 편집 디자인 등이 많다. 그래서 독립출판물 축제는 규모 번듯한 도서전에서 담지 못하는 자유와 발랄함, 트렌디함이 있다.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한지 문화, 전주의 옛 책인 '완판본', 책 만드는 서점 '서포' 등을 지닌 전주에서 직접 '전주책페어'를 기획해 진행하며 독립출판물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2025년 행사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논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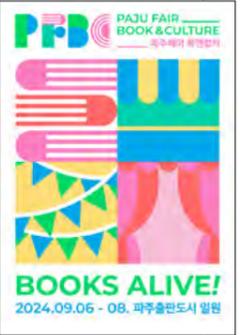
인스타그램 @jj.bookfair



파주에서 열리는 책과 지식의 축제
파주북소리·파주페어 북앤컬처

예술인 도시 헤이리, 출판단지 등이 있는 파주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책의 도시. '파주북소리'는 2025년 14회차를 맞이하는 중견 축제이고, 파주페어 북앤컬처는 지난 2024년 처음으로 파주 북소리와 공동 개최된 신생 축제다. 2024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 둘의 동시 개최로 기존 파주북소리가 열리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외에 엠5, 문발리현책방골목 블루박스, 문발로 거리 등 파주 출판문화단지 도처로 확대 개최됐다. 프로그램도 단순한 책 축제보다 다채롭다. 뮤지컬 배우 오만석, 손준호, 김소현 등이 참여한 <책이 피어난다!>는 뮤지컬 콘서트, <정글북>, <겨울 나그네> 등의 연극은 물론 버스킹, 플리마켓, 푸드 트럭까지 있는 파주시의 거대한 문화 축제로 확장됐다. 다양한 출판사들의 도서와 문화 행사 등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볼 만한 나들이로도 손색없는 흥미롭고 풍성한 책 축제다. 올해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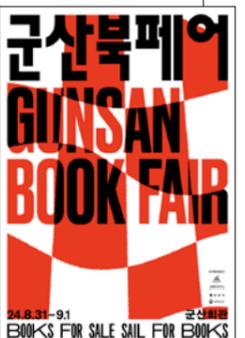
pajubooksori.kr, pajufair.com



재기 발랄, 힙한 책 축제
군산북페어

2024년 8월 시작한 신진 북 페어. 관람객 6,600여 명이 모이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관광 지역이 아닌 아파트와 교회, 빵 가게 등이 있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열렸음에도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30대 젊은 독자층만이 아닌 가벼운 차림의 나이 든 지역 주민, 아이,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섞여 동네 집 앞 책 잔치에 참여한 듯 흥겨운 기운이 가득했다. 축제엔 국내외 100여 팀의 출판사, 서점, 예술인 등이 참가해 지방 도시에 상대적으로 부재하기 쉬운 문화적 풍요로움, 다양성을 더했다. 도서 외에도 개성이 담긴 29개국 203개 서점의 토트백을 전시한 <가방은 아름답다-세계의 서점 토트백 컬렉션>, 현재 주목할 한국의 북 디자이너 11인의 인터뷰가 담긴 책을 전시로 풀어낸 <펼친 면의 대화-군산에서> 등 책으로 펼칠 수 있는 색다른 문화의 장과 볼거리를 담았다. 올해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논의 중이다.

www.gsbf.kr



책보다 굿즈

책에만 집중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애독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실용적이면서 트렌디한 책 굿즈들.

Writer: 한소영 Photo: 각 브랜드 사이트

스누피는 못 참지!

알라딘 | 피너츠 북엔드,
본투리드 디자인 독서대

책보다 주목받는 굿즈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독서의 본질에 맞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렇듯 독서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싶은 독자들도 영원한 스테디셀러, 스누피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캐릭터 스누피를 활용한 독서용품들을 꾸준히 선보인다. 북엔드와 독서대로 탄생한 스누피를 보고 있으면 책 읽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해줄 아이템 하나 갖는다고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독서가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테니까.

구매처 www.aladin.co.kr 인스타그램 @aladinbook



작가에 대한 아방가르드한 해석 트락타트 | 프란츠 카프카 티셔츠

의류 브랜드 트락타트 사이트의 카테고리는 꽤 특이하다.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학문 분야별로 나뉘고, 인문학은 또 역사학·철학·문학·독일어 문학 등으로 나뉘는 식이다. 그리고 독일어 문학을 클릭하면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조금 난해한 모습으로 프린트된 프란츠 카프카 티셔츠의 구매 화면으로 넘어간다. 학자와 작가의 모습을 독특하게 해석해 프린트한 티셔츠를 선보이는 트락타트는 출판사 문학동네와 협업해 조지 오웰 티셔츠를 선보이기도 했다. 2024년은 프란츠 카프카 타계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카프카 티셔츠를 구매한 이들은 티셔츠를 입은 채 카프카의 책을 들고 재미있는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카를 마르크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샤를 보들레르, 프리드리히 니체, 메리 셸리, 윤동주, 황순원, 백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들을 유쾌하게 해석한 티셔츠가 다양하다.

구매처 www.allegoriker.com 인스타그램 @traktatseoul

책 위에서 잠자는 고양이 완디스튜디오 | 꼬질꼬질 고양이 문진



문진은 책상 위에 책을 놓고 읽을 때 펼친 면이 고정되도록 눌러두는 물건이다. 최근에는 독특하고 예쁜 문진이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각광받는다. 이 사랑스러운 문진도 그중 하나. '꼬질꼬질 고양이 문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진 속 사진은 대구 동구의 어느 거리에서 찍은 고양이란다. 볼록렌즈 효과가 나는 아크릴 반구 모양의 문진은 잠든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극대화한다. 고양이가 누워 있는 듯 보이는 문진을 치우고 페이지를 쉬이 넘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꺼운 '벽돌 책'을 자주 독파해야 하는 애독자라면 눈여겨보자.

구매처 smartstore.naver.com/wandmoon9



책가방이 품질 사태? 미온전 | 산'책' 가방

한 권의 책 모양을 닮은 제품은 산책 가듯 가볍게 드는 책가방이다. 책 하나가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안에 여러 크기의 주머니가 있어 휴대폰이나 메모지, 연필 등 다양한 소지품을 든든하게 넣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가방의 주인공은 책. 북 커버처럼 쓸 수 있는 이 가방에는 심지어 가름끈도 달렸다. 유명 출판사의 유튜브에 이 책가방이 등장하더니, 2024년 신제품은 물량을 공개하자마자 품절되어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애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금 열심히 제품을 준비 중이라니, 독서 산책을 함께할 모던하고 실용적인 가방이 필요하다면 올해의 신제품을 기다려보자.

구매처 smartstore.naver.com/mionjeon

인스타그램 @mi.on.jeon

작은 책을 한 손으로 읽을 때 오니프 | 조개 원목 북홀더링

독서도 스마트하게 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독서용품이 점점 늘고 있다. 북홀더링은 책을 한 손으로 들고 읽을 때 펼침면을 눌러주어 독서를 돕는 아이템이다. 바쁜 일상 속 오고 가는 대중교통에서 독서를 해야 할 때, 어떤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틈틈이 독서를 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물건이다. 오니프의 조개 원목 북홀더링은 북미산 호두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조개처럼 소담스러운 모양이 특징이다. 🐚

구매처 onif.kr 인스타그램 @onif.official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첸나이 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사무소

팔라렘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L I F 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프란 향 가득한 오스만튀르크 유적지

Türkiye



Safranbolu

튀르키예 사프란볼루

화려했던 오스만제국의 역사를 품은 사프란볼루는 독특한 건축물과 전통 시장, 자연의 매력을 간직한 튀르키예의 숨은 보석이다. 구도심에는 잘 보존된 오스만 가옥과 공예품, 풍부한 먹거리로 가득한 올드 바자르가 자리하며, 근교에서는 협곡이 있는 웅장한 자연과 오래된 수도 등을 만날 수 있다.

Writer: 두경아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셔터스톡

사프란볼루 Safranbolu는 튀르키예 북부의 카라뷔크 Karabük 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역사적 건축물과 전통이 잘 보존된 유명 관광지다. 특히 구도심에 남아 있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풍부한 문화유산, 향신료 사프란과의 연관성 덕분에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프란볼루는 오스만제국 시대에 상업 중심지로 번영했다. 13세기부터 철도가 개통되기 전인 20세기 초까지, 사카리아강 유역과 카스타모누, 시노프 일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았으며, 수많은 카라반(상인)과 여행자들이 도시를 거쳐갔다. 이를 기반으로 숙소와 시장이 발달하며, 흑해 연안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다.

14세기에는 올드 모스크, 전통 목욕탕, 이슬람교 신학교 등 주요 건축물이 세워졌고,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건축된 전통 오스만 가옥들은 오스만 제국 도시 건축의 표준이 될 정도였다. 오늘날에도 구도심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전통 양식에 따라야 한다는 조례가 있어 도시경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사프란볼루라는 이름은 고급 향신료 사프란에서 유래했다. 과거 이 지역은 사프란 재배로 유명했으며,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사프란은 음식·약재·염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도시의 경제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다.

20세기 초까지 일대의 중심지는 사프란볼루였으나, 1939년 산업화와 함께 인근 도시인 카라뷔크에 철강 공장이 세워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프란볼루는 소외되었고 주도 지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전통 가옥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고,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마을 사프란볼루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

- 1. 17~19세기 사프란볼루 구도심의 전통 오스만 가옥들은 오스만제국 도시 건축의 표준이 되었다.
- 2. 노란색의 사프란 차는 사프란 재배로 유명하던 사프란볼루의 역사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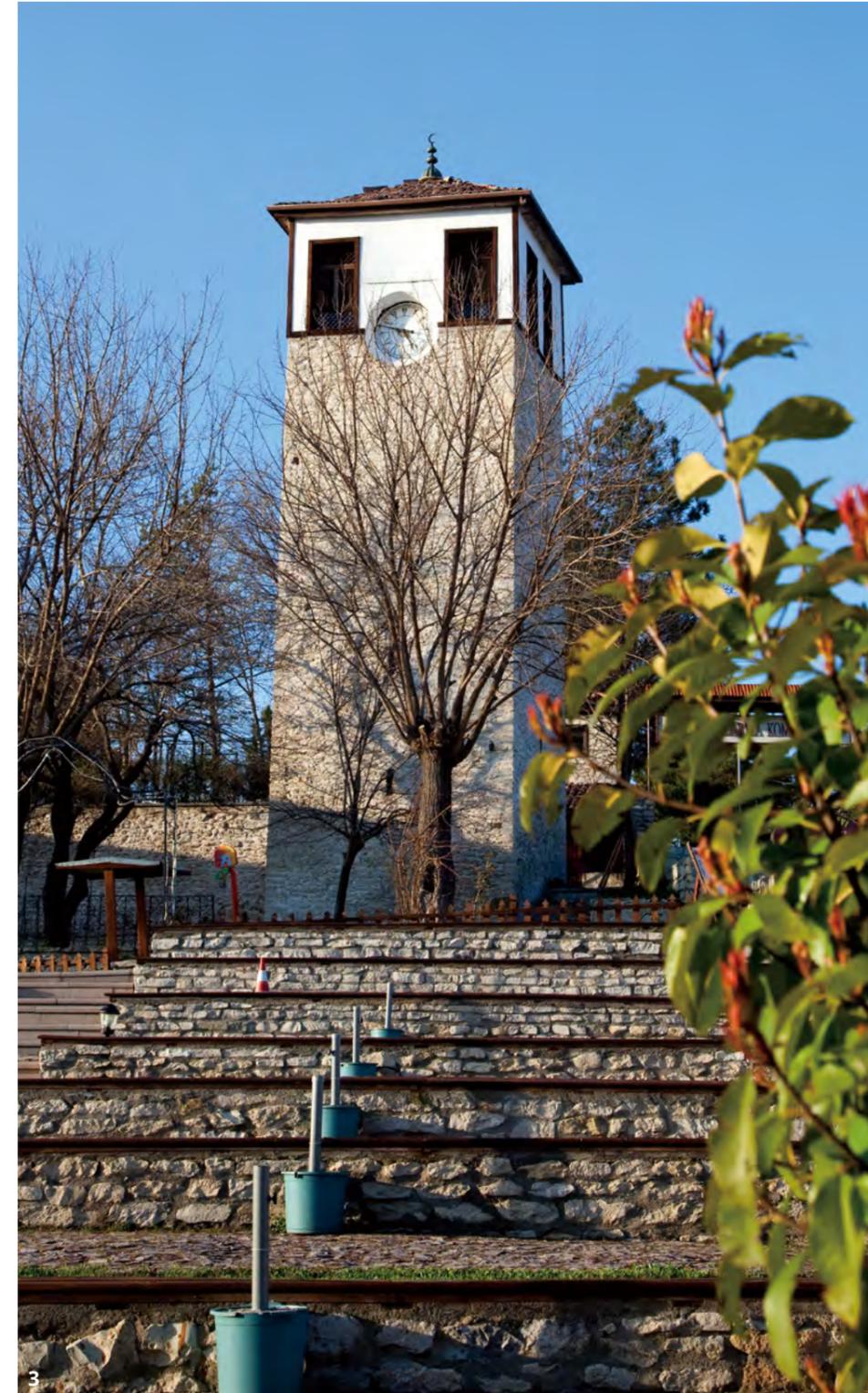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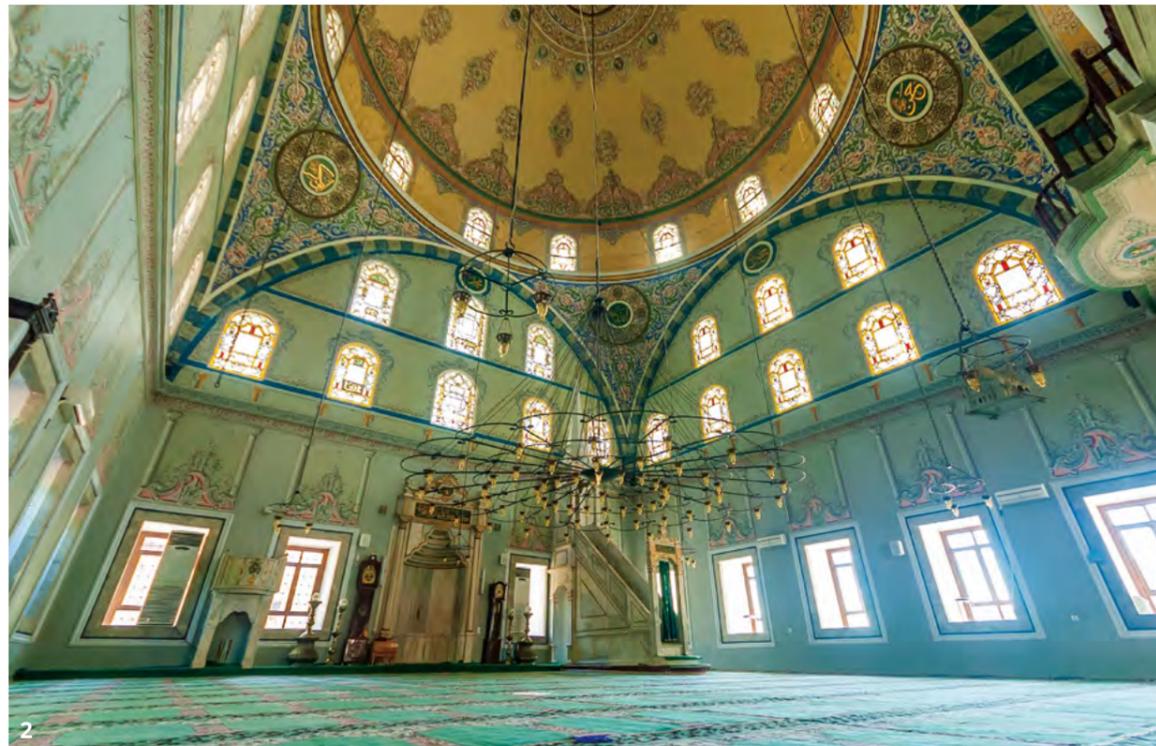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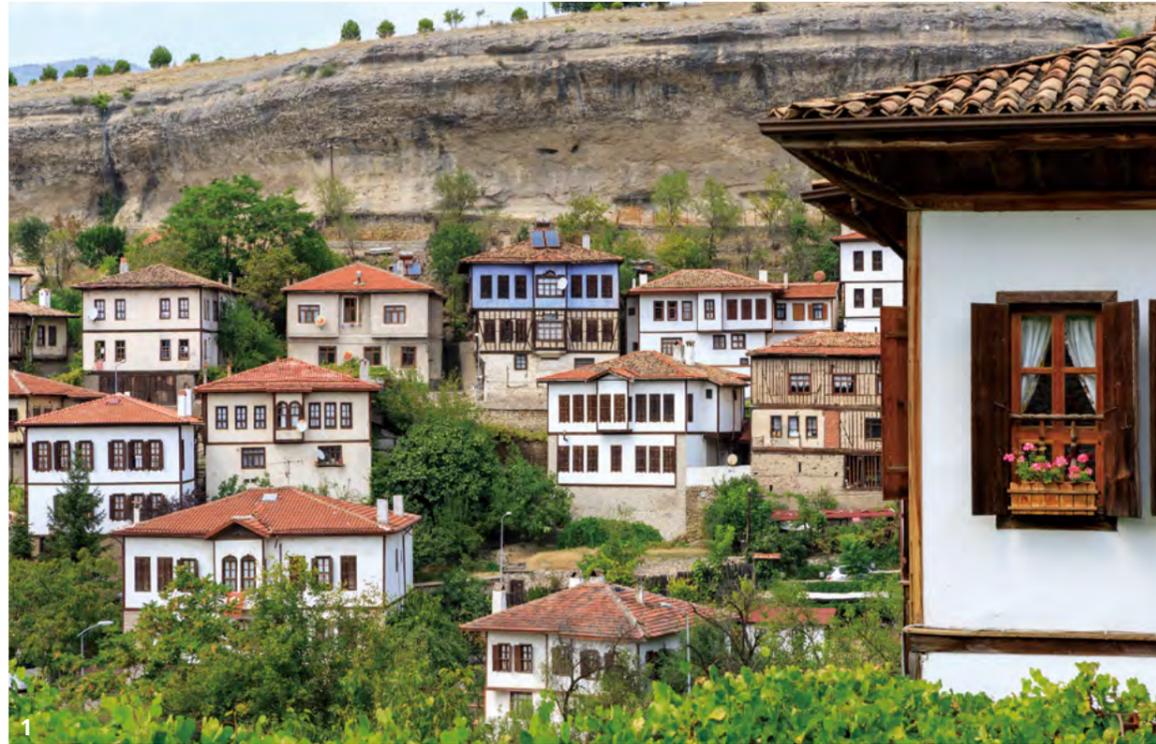
오스만 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도심의 풍경

사프란볼루 구도심에는 잘 보존된 오스만 시대의 주택 800여 채가 자리한다. 이 건물들은 폰토스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나무와 돌을 조화롭게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하이말라르(Haremlik)로 부르는 2~3층 높이의 전통 주택들은 대문, 발코니, 정원 등 섬세한 디테일을 자랑한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라반사라이(여행자 숙소)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1640~1648년 건축된 진지 한(Cinci Han) 호텔은 60개의 객실을 갖춘 대규모 건물로, 당시의 영화로움을 잘 보여준다. 이 건물 안에는 커피 박물관이 자리해 튀르키예의 커피 문화를 반영한 자료와 역사적 인물들이 사용한 커피 잔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약 400년 전 건축된 터키식 목욕탕 하맘(Tarihi Cinci Hamamı)도 있다. 이곳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감상하는 전시 공간이자 현재도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튀르키예 목욕 문화를 체험하며 우리나라의 세신사 같은 배스 필링(bath peeling) 서비스와 사우나를 경험할 수 있어 여행 필수 코스로 꼽힌다.

이슬람 사원인 이즈제트 메흐메트 파샤 모스크(Izzet Mehmet Pasha Mosque)는 전통 오스만 건축양식과 지역적 특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돔과 미너렛(첨탑)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 건축 요소와 간결하고 조화로운 디자인이 돋보인다. 석조와 흰색 벽의 조화에서 이 지역만의 독특한 건축 미학을 보여준다.

구도심 동쪽에 위치한 '성(Kale)'이라 불리는 언덕은 도시 전경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다. 이 언덕에는 1797년부터 작동을 시작한 시계탑(Tarihi Saat Kulesi)과 도시 역사박물관이 자리 잡았다. 탑 주변에는 튀르키예 각 도시에 있는 15개의 시계탑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전시한 시계탑 공원도 있다. 사프란볼루 구 시가지의 한눈에 담고 싶다면 흐드르크 언덕(Hidirlik Tepesi)을 추천한다. 이곳은 가장 아름다운 사프란볼루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언덕으로, 특히 해 질 무렵의 로맨틱한 풍경이 일품이다.



- 1 사프란볼루 구도심에는 잘 보존된 오스만 시대의 주택 800여 채가 자리한다.
- 2 이즈제트 메흐메트 파샤 모스크는 전통 오스만 건축양식과 지역적 특색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다.
- 3 구도심 동쪽에 위치한 언덕에는 1797년부터 작동을 시작한 시계탑이 우뚝 서 있다. 도시 전경을 조망하기도 좋은 장소다.



웅장한 자연과 찬란했던 시대의 흔적을 찾아서

사프란볼루 구도심 북쪽에 위치한 토크틀리 협곡 Tokatli Canyon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다. 협곡의 웅장한 절벽과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은 탁 트인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협곡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크리스털 테라스 Crystal Terrace다. 협곡 위 80m 높이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 바닥 전망대로, 협곡 아래를 내려다보며 짜릿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협곡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와 하이킹 코스가 있어 강과 절벽의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경험을 제공한다.

차이데레시 수로교 Cayderesi Aqueduct는 과거 오스만제국 시절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유적지다. 사프란볼루가 상업 중심지로 번성하던 시절, 물 공급을 위해 주변 산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수로다. 석조 아치 형태의 이 수로교는 단순한 수로 기능을 넘어 전통 오스만 공학 기술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석재와 석회 모르타르가 주된 재료로 사용됐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사프란볼루 외곽에 위치한 치누르 마을 Cinar Village은 소박한 전통 마을로, 오스만 시대의 가옥과 생활상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마을 곳곳에는 오스만제국 시대의 전통 생활 도구, 가구, 의복 등이 전시된 박물관과 가옥들이 있으며, 일부 가옥에서는 전통적인 음료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1. 웅장한 절벽과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아름다운 토크틀리 협곡
2. 협곡 위 80m 높이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바닥 전망대 크리스털 테라스
3. 오스만제국 시절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유적지 차이데레시 수로교



1.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 시장 올드 바자르에는 수공예품, 도자기, 패브릭 제품, 향신료 등을 파는 상점들이 있다.
2. 올드 바자르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수제 디저트 로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프란볼루

사프란볼루는 수세기 동안 카라반 무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17세기 도시가 크게 번성해 공공 건축물과 주택에서 오스만제국 내 광범위한 지역의 도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무역 구조의 변화와 철도의 발달로 도시 번영은 종말을 맞았다. 도시의 중심은 제철 공장이 세워진 인근 카라뷔크로 이동했으며, 많은 사프란볼루 주민이 카라뷔크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래 살던 집을 유지하는 걸 선호했고, 이러한 선택은 제한적이거나 마을에 안정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당시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상당 부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이런 노력 덕분에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 도시에는 총 1,008개의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물관 한 곳, 카라반사라이 세 곳, 목욕탕 다섯 곳, 영묘 다섯 곳, 분수 여덟 곳, 모스크 스물다섯 곳과 수백 개의 주택이다.

사프란볼루 가는 법

사프란볼루까지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종굴다크 공항(Zonguldak Airport)으로,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약 1시간 소요된다. 종굴다크에서 사프란볼루까지는 카라뷔크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약 3시간 30분 걸린다. 이스탄불에서는 직행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스탄불 에센레르 버스 터미널에서 사프란볼루 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면, 약 7시 30분이 소요된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4시간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지역색을 담은 수공예품과 먹거리가 있는 올드 바자르

사프란볼루 올드 바자르(Safranbolu Old Bazaar)는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 시장으로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다. 시장에는 수공예품, 도자기, 패브릭 제품, 향신료, 전통차 등을 파는 상점이 늘어서 있다. 특히 도시 이름과 연관 있는 사프란으로 만든 상품이 유명하다. 노란색의 사프란 차는 이곳에서 맛봐야 할 별미다.

올드 바자르 안에는 전통 튀르키예 과자 상점들도 모여 있다. 다양한 수제 튀르키예 과자를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튀르키예식 사탕인 로쿰(Lokum)이 대표적이다. 사프란 로쿰, 피스타치오 로쿰, 장미 향 로쿰, 초콜릿 로쿰 등 다

양한 로쿰을 만날 수 있다. 사프란볼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프란 로쿰이 가장 인기 있는데, 크림을 첨가하고 곁에 코코넛을 묻혀 맛이 더욱 풍부하다. 일부 상점에서는 로쿰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예쁘게 포장된 로쿰은 사프란볼루를 기념하는 여행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 비스킷 사이에 로쿰을 끼운 샌드위치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쿰 관련 디저트다. 이 밖에 시장에서는 말린 무화과와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석류 주스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또한 튀르키예 전통차를 즐길 때 사용하는 구리 주전자와 컵, 전통 문양이 수놓인 테이블보, 쿠션, 사프란볼루 전통 의상, 전통 주택을 재현한 작은 미니어처 모형 가옥 등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



호방한 붓질 사이로 빛나는 섬세한 가치, 한국화가 류재춘 내일은 더 큰 달이 뜨리라

그 달은 자꾸 커진다. 한 사람의 희망과
또 한 사람의 염원이 더해지면 더욱 커질
것이다. 류재춘의 달이 검은 밤을 지울 만큼
환한 이유다. *Writer*: 강은진 *Photo*: 작가 제공



‘월하’, 65×32cm, 2017

더없이 세련된 전통적 가치

예술 장르를 불문하고 달은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다. 저마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만큼 메시지를 전달하는 운신의 폭도 좁다. 그만큼 새로울 게 없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조금만 달라도 모든 이가 금세 알아차린다는 뜻도 된다. 바로 류재춘의 작품들이 그렇다.

요즘 잘나가는 한국화가를 여럿 호명하면, 꼭 들어가는 작가가 류재춘이다. ‘K-수묵’이란 키워드로 굵직한 전시도 연이어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

2022년 NFT^{대체불가토} 시장에 ‘월하 2021’ NFT 에디션 200개를 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미디어 특허·메타 지능·AI 등 신기술력과 만난 K-회화를 통해 한국화의 변용을 이끌고 있다”면서 “한국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확산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화의 전통을 과감히 재해석한 작가의 담대함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독창적인 건물이 즐비한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류재춘의 작업실에는 색색의 크고 작은 달이 가득했다. 직접 마주한 작품 속 달은 꽤 힘이 있었다. 새하얀 화선지를 가르

는 붓질의 호방함은 여성 작가에게 가지는 선입견을 깨기 충분했다. 류재춘의 대표작 시리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달, 그 달은 대체 작가에게 무엇일까.

어둠을 비추는 마음, 달

우리는 일찍이 달에 빌었다. 모양이 조금이라도 이지러진 달이 아닌 정월대보름의 달처럼 크고 큰 둥근달에 빌었다. 캄캄한 밤이 현실의 고통이라면, 그 어둠을 밝히는 둥근달은 희망이고 행복이자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한 줄기 빛이

었다. 신기하게도 류재춘의 작품은 모두 둥근달이다. 초승달, 상현달, 그믐달 등 여러 달이 있지만 오직 완벽한 둥근 원 풀 문(Full Moon)이다. 평론가들이 류재춘에게 궁금해하는 지점이다. 류재춘은 ‘둥근달 외에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단언한다. 의식과 무의식 그 어디에도 다른 달은 없다. 둥근달은 완성을 의미한다. 역겹의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을 수많은 사람의 염원, 그것은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오늘도 둥근달을 그리는 류재춘의 화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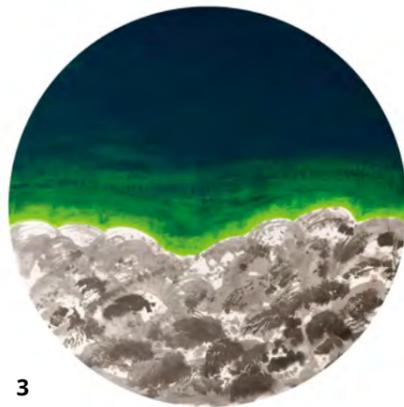
파주 작업실에서 만난 류재춘은 ‘작품 속 달이 자꾸 커지는 이유’라며 말문을 열었다. 수묵화로는 파격적으로 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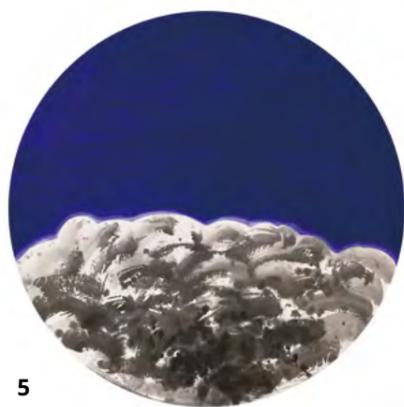
2



3



4



5

- 1 '목산' [Majestic Mountain], 193×130cm, 2020
- 2 '한국의 달' [Korean Moon], 212×148cm, 2023
- 3 '그린 문', 130×130cm, 2024
- 4 '핑크 문', 135×135cm, 한지에 수묵 채색, 2024
- 5 '블루 문', 135×135cm, 한지에 수묵 채색, 2024
- 6 '산', 130×480cm, 2023 파랑-1



6

라색 배경을 칠한 '월하' 시리즈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15년, 둥근달의 심상은 잡혔지만 좀처럼 작업이 풀리지 않자 그녀는 무작정 북한산에 올랐다. 밤낫산을 오르내리며 작품의 실마리와 씨름하다, 3일째 새벽 산 정상에서 맞은 여명은 온통 보라색이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을 감싸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인 진색으로 통한다. 류재춘은 완성을 의미하는 달과 치유를 뜻하는 보라색을 만나고 비로소 붓을 들었다.

행복과 풍요를 담아내다

류재춘은 단언한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것은 달이 아닌 마음이고, 그 염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이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후원하는 단체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또 가까운 이들의 사연이 전해질 때마다 류재춘의 달은 커진다. 부디 그들이 안전해지기를, 부디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부디 그들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보다 큰 종이를 꺼내 든다. 왜 달 그림이 류재춘의 대표작이 될 수 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 진심을 그릴 수 있는 작가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이 밖에도 중국 황산에서 영감을 받은 '목산', 수목의 농담이 살아 숨 쉬는 듯 붓질의 에너지가 넘치는 '폭포' 시리즈 등 한국화가의 잠재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작품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류재춘은 2016년 K-한지에 먹 작업으로 자연을 이미지화하고 배경이 될 그림을 여러 장 겹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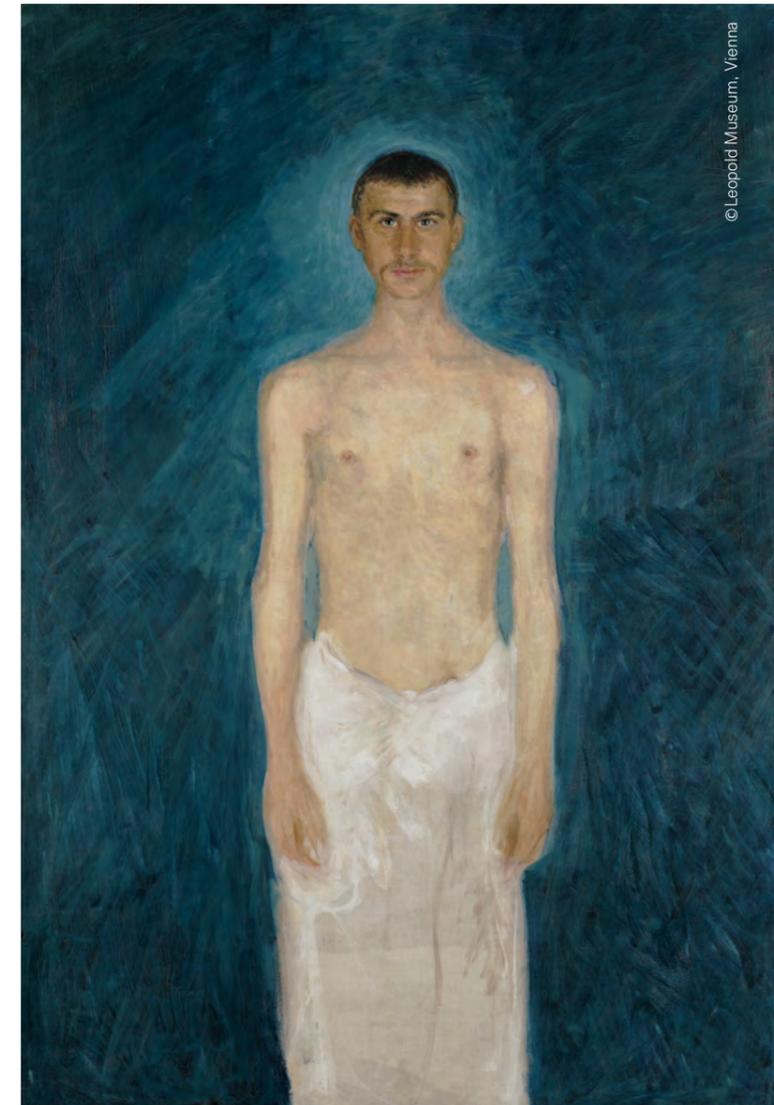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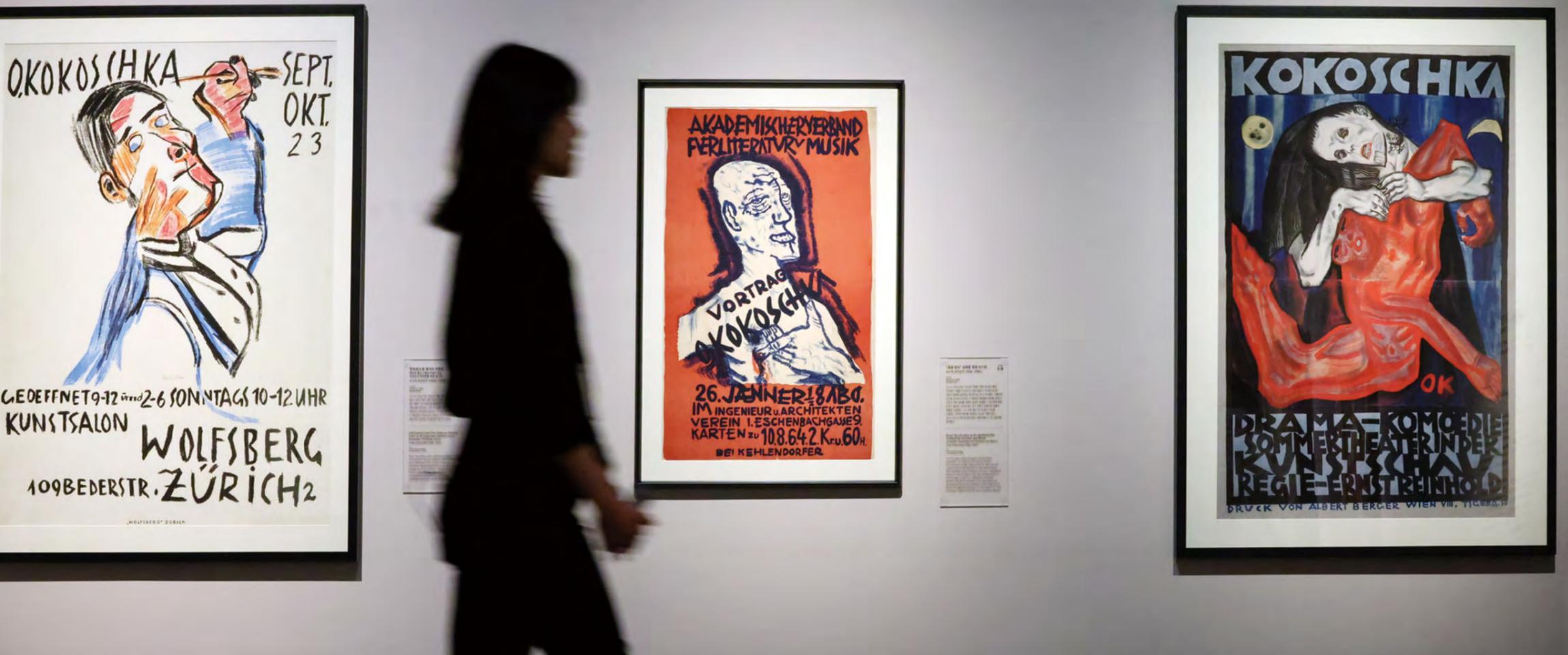
그려 빛을 투과하는 독특한 방식을 특히 출원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작가의 부단한 노력이 전해진다. 류재춘은 오늘도 꿈꾼다. 진짜 달을 그릴 순 없을까 생각하며 붓을 든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류재춘의 뒤를 따라가보자. ●



profile



한국화가 류재춘은 성균관대 미술대학 동양화학과(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미술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전미술문화재단 선정 초대전 등 수많은 국내 개인전은 물론 헤이룽장성 수분하 러시아 공관 미술관 류재춘 초대 상설 개인전을 가졌다.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 문화교류단장, 중국 동북아 미술관 관장, 한국미술협회 국제교류위원장 등 국내외 문화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반신누드의 자화상, 리하르트 게르스틀, 1902~1904년

전통을 거부한 예술가들 새로운 시대를 호명하다

화려함과 혼란이 공존하던 19세기 말, 비엔나에는 전통에 반기를 든 예술가들이 등장했다. 기존의 예술 사조에서 '분리'되기를 자청했던 몽상가들. 그들이 꾸었던 충천연색 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펼쳐졌다.

Writer: 황진아 Photo: 레오폴트미술관, 한경DB

어제의 세계를 사는 황제의 도시

유럽의 작은 나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과거 중부 유럽 전역을 아울렀던 '황제의 도시'였다. 음악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우아한 사교와 유태주의가 싹텄다. 그러나 화려함의 반대편에는 쇠락의 그림자도 드리웠다. 근대를 지나 현대로 향하던 19세기 말의 비엔나는 오랜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유독 시대의 변화를 외면했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 Stefan Zweig의 회고록 제목처럼, 비엔나는 '어제의 세계'에 살고 있는 도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반된 분위기에서 미술, 음악,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비엔나식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예술운동이 일어났다.

1857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을 허물고 반지 모양의 도로 '링슈트라세 Ringstraße'를 건설하라고 명했다. 링슈트라세에는 정치·행정·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들어섰고,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집결했다. 그중에는 "시대에는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이라는 모토로 '비엔나 분리파 Secessions'라는 깃발 아래 모인 이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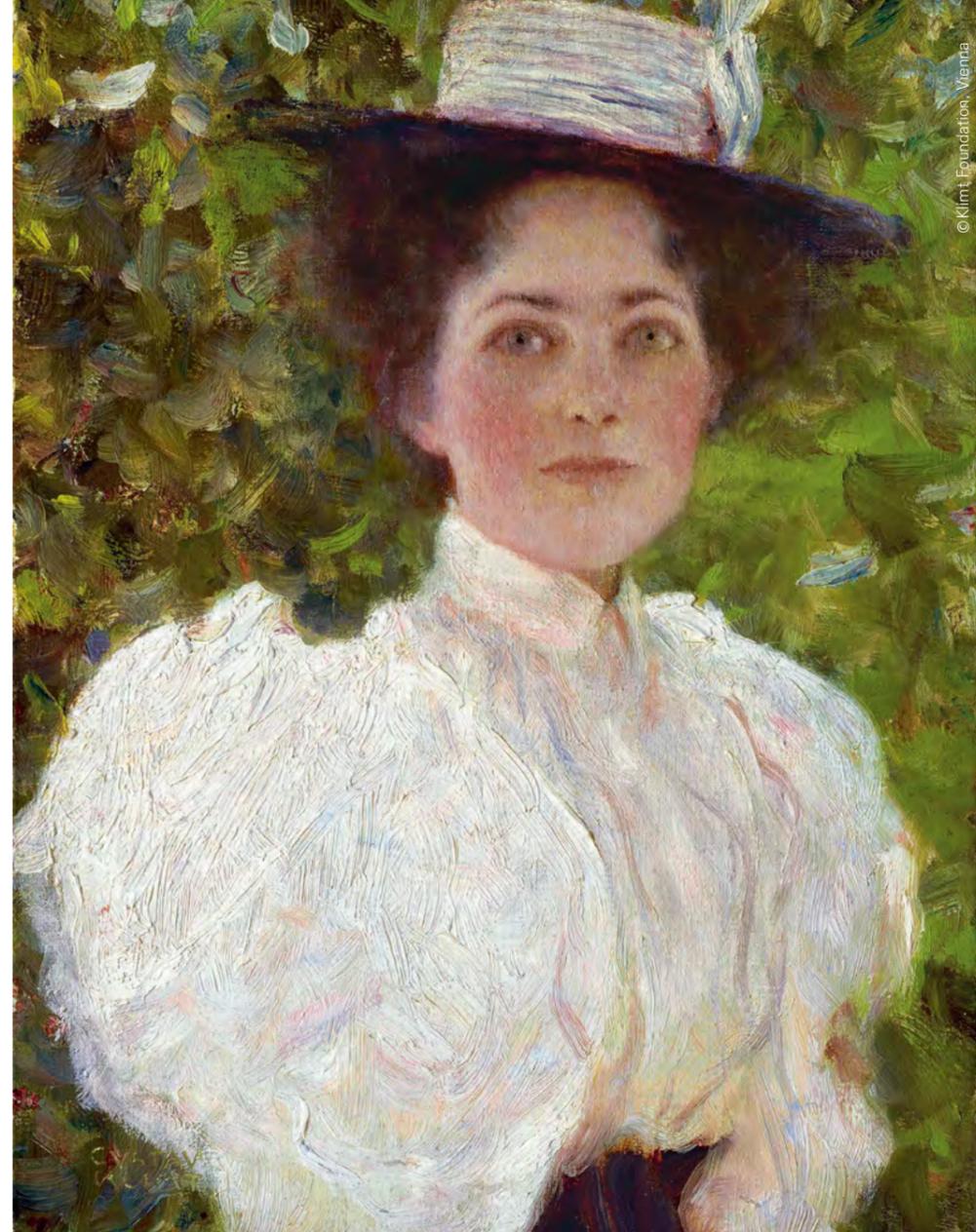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에곤 실레, 1912년

새로운 예술의 실험 무대를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00년대 비엔나를 무대로 새로운 예술을 실험한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를 개최한다. 2022년 성황리에 개최한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의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는 전시로, 시기 전환기라는 짧은 시기에 기존 예술의 틀을 깨고 혁신의 중심에 선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인 레

오폴트미술관의 소장품 중 엄선한 대표 작품들을 대거 소개한다. 레오폴트미술관은 컬렉터 루돌프 레오폴트 Rudolf Leopold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트 레오폴트 Elisabeth Leopold가 설립한 곳으로, 세계 최대의 에곤 실레 컬렉션을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엔나 모더니즘', '1900년대 비엔나', '비엔나 분리파'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이 전시는 회화, 드로잉, 포스터, 사진, 공예품까지 총 191점이 전시되는 비엔나 분리파 최대 규모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레오폴트미술관이 한국에 소개되는 최초의 전시라는 점에서도 놓치기 아쉽다.



수풀 속 여인, 구스타프 클림트, 1898년경

비엔나 1900을 대표하는 이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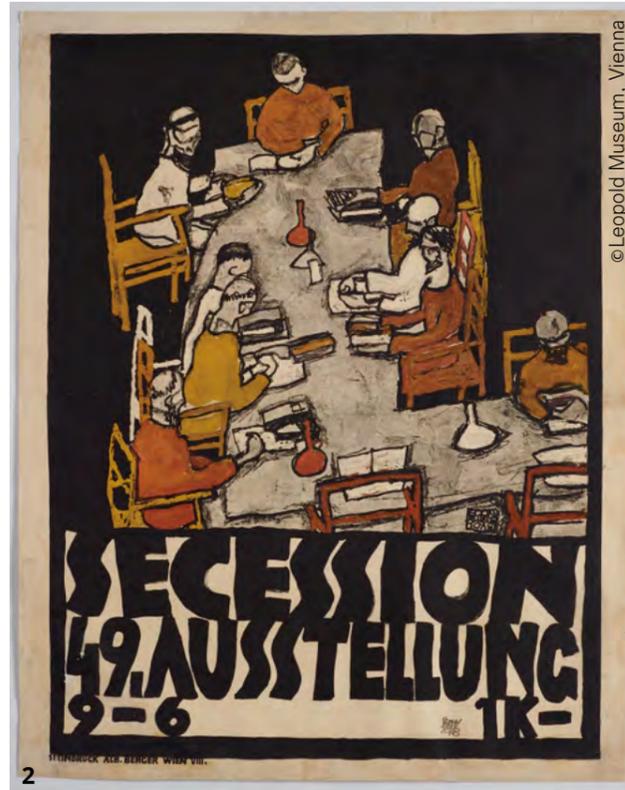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포함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비엔나 분리파 예술가 6명의 삶과 작품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황금빛의 화가'로 익숙한 구스타프 클림트는 '1900년대 비엔나'라는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클림트는 비엔나 분리파의 초대 회장으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비엔나 예술계가 모더니즘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클림트가 동료들과 함께 창립한 비엔나 분리파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시작된 새로운 예술운동을 오스트리아에 들여왔고, 회화·드로잉·조각·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예술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클림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예술가이자, 독특한 화법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화가 에곤 실레를 집중 조명한다. 표현주의 예술의 선구자 오스카 코코슈카, 리하르트 게르스틀, 그리고 비엔나 디자인 공방의 설립을 주도하며 예술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요제프 호프만, 콜로만 모저도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1 제14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 알프레트 롤러, 1902년
 2 원탁, 제49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포스터, 에곤 실레, 1918년
 3 인락의자, 721번, 디자인: 오토 바그너 / 제작: 야코프 & 요제프 콘, 1902년경



예술이 된 일상, 일상이 된 예술

한편 이번 전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총체예술’이다. 클림트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교류하는 자리인 ‘전시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조각·회화·디자인·음악 등 예술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총체예술’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1902년 베토벤을 주제로 열렸던 제14회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 개막식에서처럼,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가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은은하게 흘러나온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클림트의 작품 ‘베토벤 프리즈(Beethoven Frieze)’를 영상과 음악으로 재구성했다. 대형 화면에서 영상으로 살아난 작품을 음악과 함께 감상하며 관람객이 총체 예술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세기 비엔나 분리파 예술가들이 지향한 총체예술은 예술적 장르를 허물고 예술과 일상을 통합하고자 한 ‘비엔나 디자인 공방’으로 이어진다. 전시 제3부에서는 비엔나 디자인 공방의 가구와 벽지, 포스터, 우표 등 각종 공예품을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세계, 그 끝에서 만나는 감동

특별전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프롤로그부터 3부까지는 비엔나 예술계에 등장한 구스타프 클림트와 1897년 창립한 비엔나 분리파의 역사와 이념, 그리고 비엔나 분리파의 철학을 반영한 비엔나 디자인 공방을 소개하는 ‘앞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4부와 5부는 에곤 실레로 대표되는 젊은 예술가들의 표현주의적 경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 중 관람객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전시의 4부와 5부일 것이다.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받는 표현주의 예술의 아이콘 리하르트 게르스틀과 오스카 코코슈카

의 작품은 그동안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기에 더욱 특별하다. 5부에서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화가 에곤 실레가 남긴 자화상과 연인들의 초상, 드로잉, 풍경화 등의 작품을 원화로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의 감동은 전시 마지막에 상영되는 영상을 통해 더 깊은 울림이 된다.

개막 전부터 대중의 큰 관심을 모으며 티켓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 ‘비엔나 모더니즘’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기회다.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예술가들, 그들의 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어났을까. 세기말 비엔나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따라가보자. ●

관람 안내

전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1
 전시 기간 2024년 11월 30일~2025년 3월 3일
 주요 작품 구스타프 클림트 ‘수풀 속 여인’, 에곤 실레 ‘파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등 회화·드로잉·포스터·사진·공예품 총 191점
 관람 시간 10:00~18:00(입장 마감 17:20)
 *수·토요일: 10:00~21:00(입장 마감 20:20)

특별전의 감동을 더할, 깊이 있게 즐기는 TIP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특별 전시 감상 전 꼭 읽어봐야 할 책
 전원경 외 / 한국경제신문 / 1만5,000원

세기 전환기 비엔나의 시대상과 문화 예술의 흐름, 예술가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책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 출간됐다. 특별전 감상 전 읽어볼 만한 정보와 상식을 담은 이 책은 전시의 대표 작품 29점의 감상 포인트, 전원경 예술전문 작가가 소개하는 1900년대 비엔나의 시대상, 예술가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술을 갈망했던 예술가들의 꿈을 좇아가는 세기말 비엔나의 문화 예술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과감한 디자인과 환경을 고려한 기술의 조화 스노헤타 건축 스튜디오 Snøhetta



1

노르웨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빙하와 같은 오페라하우스, 해시계 모양의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조약돌 형태의 킹 압둘아지즈 세계문화센터... 노르웨이 건축 스튜디오 스노헤타는 과감한 디자인과 환경을 생각하는 공법으로 새로운 건축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Editor: 두경아 Photo: 스노헤타, 각 장소



2



- 1,3. 은행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베이징 시립 도서관. 기둥은 옥상의 빗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기능을 해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한다.
- 2. 등산객에게 안전한 피난처이면서도 지형, 풍경과 조화를 이룬 바루드 쉼터 Refuge de Barroude
- 4. 2026년 완공을 앞둔 부산 오페라하우스. 제2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꿈꾸고 있다.



© Yumeng Zhu

노르웨이 건축 스튜디오 스노헤타 Snøhetta는 1987년 노르웨이 건축가 세틸 T. 토르센 Kjetil Tvedal Thorsen과 젊은 건축가 그룹이 설립했다. 스노헤타라는 이름은 노르웨이 도브레피엘 순달스피엘라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해발 2,286m의 스노헤타산에서 유래했다. 스노헤타는 설립 초기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1987년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건축 디자인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되며 명성을 얻었고, 이 프로젝트로 아가 칸 건축상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을 받았다. 2008년 완공된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미스 반데어로에상 Mies van der Rohe Award과 환경디자인 연구 협회상 EDRA Great Places, 유럽 도시 공공 공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노헤타의 건축 철학은 “건물과 건축이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각 프로젝트에서 책임감 있게 건물을 짓는 데 중점을 두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사람, 식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스노헤타는 교육·연구 시설, 도서관, 박물관, 문화 기관, 공연장 등 공공 시설과 자연 공간에 집중해왔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창적인 방식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익적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3

2,000년 전 고대 도서관의 부활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002년 완공된 이집트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도서관은 기원전 288년부터 기원후 30년까지 존재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재건 프로젝트로, 인류 지식의 보고이던 고대 도서관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했다. 스노헤타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서계를 연상시키는, 반쯤 물에 잠긴 태양의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새 도서관은 고대 도서관이 있던 곳과 가까운 해안에 건립됐다. 건물은 원통을 비스듬히 절단한 형태로, 바다 쪽에서 보면 지름 160m의 거대한 원판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원판은 앞으로 기울어 있으며, 상부에는 고대 썬기문자 문양이 새겨졌다. 외벽은 화석 화강암으로 제작했고, 여기에 세계 120개 언어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 '세월', '여름', '강'이라는 한글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원형은 태양을 상징하며, 지식의 순환성과 시간의 유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신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집트 10파운드 지폐 뒷면에 등장하며, 현대건축과 고대 유산의 조화로운 결합을 기념하고 있다.



Bibliotheca Alexandrina



- 1 반쯤 물에 잠긴 태양의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
- 2 외벽에는 세계 120개 언어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
- 3 고대 도서관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언어의 서적과 디지털 자료가 보관돼 있다.



Oslo Opera House

노르웨이의 빙하와 피오르를 형상화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2008년 4월 개장한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는 노르웨이 최초의 오페라하우스로, 건축학적·예술적 관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항상 방문객으로 붐비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건축디자인을 맡은 스노헤타는 오페라하우스를 바다에서 솟아오른 노르웨이의 빙하와 피오르로 표현했다. 건물 외벽에는 3만6,000장의 흰색 대리석 패널과 투명 유리를 사용해 설산과 빙하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바닥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비스듬한 디자인은 방문객들에게 설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세계 최초로 지붕 위를 걸을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로 사랑받고 있다. 옥상의 알루미늄 패널은 햇빛을 받으면 빙하처럼 반짝이며 독특한 매력을 더한다. 반면 내부는 북유럽산 목재를 사용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으로 연출했다.

이 건물은 바다 밑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위치하는 곳은 수심 12m의 바다 밑이라고 한다. 내부에는 오페라·발레·콘서트를 위한 3개 홀이 있으며, 1,364석의 대극장 외에도 200~400석의 공연장과 여러 연습실 등 총 1,100개 방이 있다. 건물 내외부 디자인뿐 아니라, 홀의 음향설계 역시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 1 바닥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비스듬한 디자인은 방문객에게 설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2 내부는 북유럽산 목재를 사용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으로 연출했다.
- 3 홀의 음향 설계도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 Ivan Brodey

1

4개의 조약돌이 이루는 미학 킹 압둘아지즈 세계문화센터

킹 압둘아지즈 세계문화센터는 2018년에 개관한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다란Dhahran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다. 이 건물은 조약돌이 모여 있는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110m 높이의 메인 타워는 3개의 조약돌로 둘러싸여 있다. 조약돌 형태의 건물은 각각 도서관, 강당, 대회당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조약돌인 키스톤Keystone은 메인 타워와 도서관 사이에 기울어진 채 고정되어 있다. 각 건물은 물리적·기능적으로 모두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키스톤은 로마의 아치 구조처럼 전체 구조를 지탱하며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건축 요소를 넘어 문화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화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된 힘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에 의해 연결돼 있다. 타임라인을 건축적 표현으로 드러냈는데, 건물의 일부는 과거를 상징하는 기반 위에 세우고,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어 있는 건물로 미래를 형상화한다. 미래에 대한 상징은 건물의 기능성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있다.



© King Abdulaziz Centre for World Culture

4

King Abdulaziz Centre for World Culture



2



© King Abdulaziz Centre for World Culture

3

- 1_ 사막 한가운데 조약돌이 모여 있는 독특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 2,3_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과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각각 공연장과 도서관
- 4_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문화적 오아시스를 지향한다.

현대 파리의 중심에 있는 통합 건물 르몽드 그룹 본사

스노헤타는 프랑스 유명 출판 미디어 기업인 르몽드 그룹Le Monde Group의 본사를 설계했다. 이 건물은 파리의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지구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르몽드 그룹 본사는 2만3,000㎡ 규모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유리 건물로, 길이는 130m에 이른다. 건물 하중을 부지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노헤타는 양 끝에 7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가운데를 비우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생긴 아치형 공간은 공공 광장으로 활용되어 방문객이 잠시 머무르며 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픽셀화된 유리 외피다. 외벽은 77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패턴으로, 2만 개 이상의 픽셀화된 유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유리 요소는 투명도에 따라 완전 투명부터 불투명까지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며, 빛의 변화에 따라 건물 외관이 달라지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 설계는 내부에서 멋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일광 유입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외피의 정교한 패턴은 신문과 잡지의 인쇄 글자를 상징하며, 1만㎡에 달하는 입면 전체가 하나의 텍스트 패턴처럼 보인다. 이 패턴은 멀리서 보면 더욱 선명하게 읽히며, 르몽드 그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파리의 독특한 도시 풍경에 조화롭게 녹아든다. ●



© Jared Chulski

3



© Marwan Harmouche

1



© Jared Chulski

2

Le Monde Group Headquarters

- 1_ 2만 개 이상의 투명도가 다른 유리로 이루어진 외관.
- 2_ 건물 사이의 아치형 구조는 누구나에게나 열린 광장으로 활용된다.
- 3_ 아외 테라스에서는 주변 도시 풍경과 선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헤리티지가 빛어낸 럭셔리 호텔

Josun Palace, a Luxury Collection Hotel, Seoul Gangnam

도심 속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할 하룻밤을 원한다면 조선 팰리스로 향해보자. 겨울 시즌 한정으로 마련한 특별한 기프트와 함께 몸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Writer: 지연 Photo: 조선 팰리스



1 조선 팰리스의 크레스트 로고가 돋보이는 메인 입구
2 웰컴 리셉션에 자리한 다니엘 아삼의 블루 칼사이트 에로디드 모세
3 세계 각지의 요리를 선보이는 뷔페 레스토랑 '콘스탄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에서 가장 럭셔리한 장소를 꼽으라면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100년 전통의 헤리티지를 배경으로 최상급 럭셔리를 추구하는 만큼 규모나 하드웨어, F&B, 서비스 등에서 여타의 호텔과 차별화된 세심함을 자랑한다. 총 25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텔 고층부에서는 최상의 환경에서 시티 파노라마 뷰와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층고와 이를 채우는 우아하고 섬세한 인테리어는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움베르트 & 포예Humbert & Poyet가 디자인 설계를 맡았다. 아르 데코 스타일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와 색감, 향기 등의 디테일 요소를 통해 느껴지는 럭셔리하면서도 모던한 조선 팰리스만의 분위기는 투숙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1



2



3



4

1. 라이브 공연도 즐길 수 있는 1914 라운지앤바
2. 조선 팰리스에서 가장 호화로운 스위트인 조선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 환상적인 파노라마 시티 뷰를 조망할 수 있다.
3. 25층에 자리한 그랜드 리셉션
4. 완벽하게 분리된 침실과 거실 구성의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

국내 최초 럭셔리 컬렉션 호텔

조선 팰리스의 또 다른 이름인 '럭셔리 컬렉션(Luxury Collection)'은 우리나라 최초로 럭셔리 컬렉션을 단 호텔로 세계적인 호텔 그룹 메리어트가 각 도시의 상징이 될 소수 호텔에만 부여하는 이름이다. 이러한 럭셔리 컬렉션 호텔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머무는 장소를 넘어 때론 여행의 목적지가 될 정도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름 외에도 조선 팰리스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호텔 곳곳에 배치한 국내외 컨템퍼러리 아티스트의 작품들이다. 웰컴 리셉션에는 조선 팰리스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다니엘 아삼(Daniel Arsham)의 대작 '블루 칼사이트 에로디드 모세(Blue Calcite Eroded Moses)'와 '쿼츠 에로디드 아라 파시스(Quartz Eroded Ara Pacis)'를, 그랜드 리셉션에는 요한 크레텐(Johan Creten)의 '글로리 스프링(Glory Spring)'를 전시해 공간에 화려함을 더했다. 그 외에도 장 미셸 오토니엘(Jean Michel Othoniel),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 국내를 대표하는 김지원·이정진 작가 등 400여 점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1년 중 언제 방문해도 좋을 곳이지만 이번 겨울, 시즌 기프트를 담은 '페스티브 뉴 이어(A Festive New Year)'를 놓치지 말자. 패키지를 예약한 모든 고객에게 조선 팰리스에서 직접 한정 수량으로 제작한, 천연 가죽 소재를 덧댄 에코백을 제공하며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는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와 함께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 '시그니처 커피&쿠키'도 즐길 수 있다. 2025년 새해, 조선 팰리스에서 명절 연휴의 즐거움과 럭셔리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예약및문의 02-727-7200 / jpg.josunhotel.com

'페스티브 뉴 이어(A Festive New Year)' 패키지



2025년 2월 28일까지 선보이는 시즌 한정 패키지로, 이용 시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을 덧댄 '시그니처 원터 에코백'을 기프트로 제공한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에코백은 조선 팰리스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크레스트 로고와 시그니처 패턴을 전면 가죽에 새겨 클래식한 매력과 트렌디한 스타일을 모두 갖췄다. 또한 투숙객 전용 라운지인 25층 그랜드 리셉션에서는 '시그니처 커피&쿠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도 제공돼 좀 더 여유로운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선택하는 객실 타입에 따라 그랜드 리셉션에서 즐기는 '모닝 테이스트'와 뷔페 레스토랑 '콘스탄스'의 조식 중 선택 가능하고 하우스 와인 2잔과 핑거푸드로 구성된 '팰리스 딜라이트', 또는 간단한 주류와 카나페 구성의 '1914 팰리스'가 제공된다.



MZ세대가 향한 곳은 어디? 편의점은 무한 변신 중

더 이상 멀리 있는 마트 대신 가는 차선책이 아니다.

편의점이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하면서 요즘 가장 핫한 마케팅 공간으로 떠올랐다.

편의점의 변화를 보면 MZ세대가 열광하는 트렌드가 보인다.

Writer: 한소영 Photo: 각 브랜드 사이트

겨울이 되면 편의점은 재빠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기에 호빵을 썬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호호 불며 먹는 군고구마도 노점상보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이 익숙하다. 출출할 때 얼른 편의점에 들어가 서서 먹는 라면이나 삼각김밥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골목 슈퍼나 분식집,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꼬치 어묵을 먹는 정겨운 풍경까지 대체한 편의점이 이제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를 방불케 하는 핫플레이스가 돼가고 있다.

최근 MZ세대의 트렌드를 재빨리 간파해 선보이는 편의점의 기획 상품이나 행사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다. 전날 백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에서 본 요리가 다음 날 이미 즉석식품으로 출시되어 있는 식이다.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이 울상 짓는 동안 편의점은 매출액이 점점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은 지난해 상반기 백화점의 매출 비중을 격차 0.6%포인트로 바짝 따라붙으면서 오프라인 유통 2위를 차지했다.

MZ세대 트렌드, 내가 제일 잘 알아

편의점은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 예로 MZ세대가 건강, 자기 관리, 소비 절제 등의 이유로 소주나 위스키 등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의 소비를 줄이면서 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지만, 편의점은 활짝 웃었다. 그 대신 비교적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하이볼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수십 종의 하이볼 음료가 겨루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된 곳은 바로 편의점이다.

캔에 담긴 하이볼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량을 늘렸다. CU는 PB 상품인 '생레몬 하이볼'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생레몬 하이볼은 출시 당시 소주와 수입 맥주 1위 제품의 매출을 모두 뛰어넘고, 하루 최대 판매량이 6만 캔을 넘어서기도 했다. 시음 후기가 바이럴되면서 품질 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핫템'으로 떠올랐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편의점업계에서 가장 빨리 내놓은 곳도 CU다. 해당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전국적인 오픈런과 품귀 현상을 일으켰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상품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제품 기획과 출시 과정을 소비자 수요에 맞

추기 위해 약 1개월 만에 쾌속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GS25는 청년 사업가가 직접 개발한 이색 막걸리를 판매하며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GS25가 3년간 2030세대 막걸리 매출 구성비를 조사한 결과 2021년 27%, 2022년 35.7%, 2023년 46.5%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GS25가 2023년 초부터 전개 중인 '힙걸리 프로젝트'는 2030세대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양조장과 함께 독특한 막걸리를 선보였다. 한정판 바질 막걸리 '너디호프드라이'는 사전 예약분이 첫날 완판됐으며, 오프라인에서도 90%를 웃도는 판매율을 달성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통주 스타트업 뉴룩과 손잡고 '뉴룩 막걸리' 3종을 출시했다. 당이 제로, 칼로리가 절반인 데다, 언어유희까지(뉴룩이 아닌 뉴룩!) MZ세대가 열광하는 트렌드 삼박자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TIP 편의점에서 이 제품을 찾아보세요!

하이볼로 거둔 성공 이어갈 편의점 막걸리 상품들

GS25 전통주 스타트업 뉴룩과 함께 만든 '뉴룩 막걸리' 3종
CU 750mL 한 병에 1,500원, 초저가 막걸리 '밤값 막걸리',
농심과 콜라베이션한 '꿀파배기 막걸리',
지역상생 막걸리 '부산 감천 막걸리',
'탁월한 가격과 올바른 품질'의 준말인 프리미엄 막걸리 '탁을'



GS25와 전통주 스타트업이 협업해 출시한 '뉴룩 막걸리' 3종

‘디토 소비’의 격전지가 되다

편의점은 유명인의 소비를 따라 하는 ‘디토 소비’ 트렌드도 주도한다. 디토 소비는 소비에 ‘마찬가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 ‘ditto’를 붙인 신조어로,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가 제안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를 뜻한다. 디토 소비와 관련해 편의점업체가 주목하는 것은 유튜브다. 최근 세븐일레븐은 1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 먹방 유튜브 크리에이터 ‘히밥’과 협업해 ‘럭히밥 김찌라면’을 선보였다. 이를 시작으로 김밥·토스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 협업 상품을 확대했다. 또 세븐일레븐은 수험생·취업 준비생 관련 콘텐츠로 1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미미미누’와 협업한 초콜릿 상품을 올해 밸런타인데이 행사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미미누가 패키지에 등장하는 ABC초콜릿, 크런키 등 상품이다.

TIP 편의점에서 이 제품을 찾아보세요!

유명 유튜브와 협업한 편의점 상품들

세븐일레븐 히밥과 협업 상품 ‘럭히밥 김찌라면’, ‘럭히밥 매콤닭갈비김밥’, ‘럭히밥 불고기킹토스트’
GS25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과 협업한 디저트 상품 ‘충주맨애플도넛슈’, ‘충주맨애플크림떡’



세븐일레븐과 유튜브 ‘히밥’의 협업 상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처럼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는 지난 한 해 그야말로 메가히트를 친 콘텐츠다. 그런데 편의점 업체도 <흑백요리사>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다. CU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했는데, 출연자 ‘나폴리 맛피아’가 만들어 대결에서 1위를 차지한 ‘밤 티라미수’ 관련 매출이 방 송 후 하루아침에 급등했다. 밤 티라미수에 CU의 PB 상품인 ‘연세유유 마롱생크림빵’과 ‘HEYROO맛밤드템’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후 CU가 <흑백요리사>와 협업해 출시한 ‘밤티라미수컵’은 사전 예약을 받아 판매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GS25가 넷플릭스와 협업해 출시한 <흑백요리사> 콘셉트 디저트 빵 4종은 동절기 대표 상품인 호빵의 매출을 넘어섰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이제 팝업 스토어를 가듯 트렌디한 제품을 만나러 편의점을 찾는다.

TIP 편의점에서 이 제품을 찾아보세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와 협업한 편의점 제품들

CU ‘밤티라미수컵’
GS25 ‘블랙마시멜로케이크’, ‘화이트마시멜로케이크’, ‘마롱티라미수’, ‘클래식티라미수’



CU에서 발 빠르게 출시한 ‘밤티라미수컵’



이제 5060세대도 공략한다

편의점의 도전은 계속된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소비보다는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려는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최근 GS25는 고객이 직접 만드는 ‘셀프형

스무디’를 도입했다. GS25가 선보인 스무디 기기는 셀프 제조 방식으로 운영돼 점포 직원의 편의를 돕는 건 물론 고객에게 직접 음료를 만드는 재미도 준다. 셀프 음료 기기는 ‘편의점 왕국’ 일본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일본 여행 유튜브 콘텐츠에서 종종 보던 스무디 기기라 MZ세대는 낯설지 않다는 반응이다. 번거로울 것 같아도, MZ세대에게는 직접 뽑아 먹는 행위가 편의점에서만 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물론, 편의점이 오로지 MZ세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최근 조사에서 편의점을 가장 많이 찾는 세대는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대의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 이용률이 늘어난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할인 행사도 자주 하는 편의점은 편리성과 가격 면에서 잘만 쇼핑하면 할인 마트에 뒤지지 않는다. 편의점업체에서 과일이나 채소, 정육 등 신선 식품을 강화한 특화 매장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세대와 관련이 있다. 높은 물가 탓에 편의점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조금 씩씩하지만, 편의점의 무한 변신은 이제 시작이다. ●



GS25는 소비자가 직접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셀프형 기기를 도입했다.



정보화 시대에 뉴스는 파도처럼 밀려온다. 뉴스는 밀려오고, 일상은 바빠지고, 놓치는 정보도 점점 많아진다. 쏟아지는 뉴스를 어디서 어떻게 봐야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있을까?

종이 신문으로 뉴스를 보는 것은 이제 웬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돼버렸다. 웹에서 여러 뉴스 플랫폼을 오가며 직접 필요한 뉴스를 찾아보는 일도 어렵긴 마찬가지. 언젠가부터 뉴스 내용은 읽지도 못한 채 뉴스 제목만 훑기 일쑤다. 뉴스 플랫폼의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다. 플랫폼에는 그야말로 각종 뉴스가 우글거린다.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성 팝업 창들은 또 어떨까?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는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한다.

뉴스레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뉴스레터는 특정 분야의 정보와 최근 트렌드만 쏙쏙 뽑아 소수의 독자를 겨냥해 뉴스 메일을 보낸다. 뉴스레터는 특히 어려운 뉴스를 구어체 경어를 사용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바빠서 뉴스를 못 찾아보는 게 우리 탓은 아니지만, 뉴스를 모르는 것은 어느새 우리 탓이 돼버리니 더 늦기 전에 뉴스레터 하나쯤 구독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행히 다양한 주제로 기획한 양질의 뉴스레터는 많다.

아직도 뉴스레터 구독 안 하시나요?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뉴스가 찾아오는 시대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척척 보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구독하면 정보 과잉의 시대에도 여유롭게 유명할 수 있다. 분야별 톡톡한 뉴스레터를 모았다.

Writer. 한소영 Photo. 각 사이트, 프리픽



뉴스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뉴닉

“지식은 너무 어렵고 지루해...” 뉴스레터 서비스 ‘뉴닉’의 사이트에 쓰인 문구 그대로다. 지식을 얻는 일은 때론 즐겁긴 하지만 대개 어렵고 지루하다. 뉴닉은 최근 뉴스 중 가장 주목도 높은 뉴스를 골라 보내준다. 즉, 뉴스 주제

는 광범위한 편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사람들이 찾는 뉴스, 꼭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한한다.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어려운 뉴스도 뉴닉이 다루면 한없이 쉽고 재미있어 진다는 것. 매해 연말이면 돌아오는 직장인들의 고민, 복잡한 연말정산에 관한 뉴스도 뉴닉에서라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펼쳐진다. 뉴닉에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레터는 모두 세 가지다. 하나, ‘뉴닉 데일리’는 평일에 발송하는 뉴스레터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발 빠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뉴닉 경제 브리핑’은 수요일에만 발송되는 경제 뉴스레터다. 짤 테크 정보부터 주요 경제 뉴스와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까지 담는다. ‘고슴이의 비트’는 금요일에만 발송되는 트렌드 뉴스레터다. 특히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업종에 종사한다면 뉴닉 에디터가 큐레이션한 트렌드를 놓치지 말자.

최근 뉴스

‘결정 장애’는 왜 쓰면 안 되는 단어일까?(뉴닉 데일리), ‘영화재개봉 좋아! 아니, 사실 안 좋아...’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연대를 꿈꾼다면 오렌지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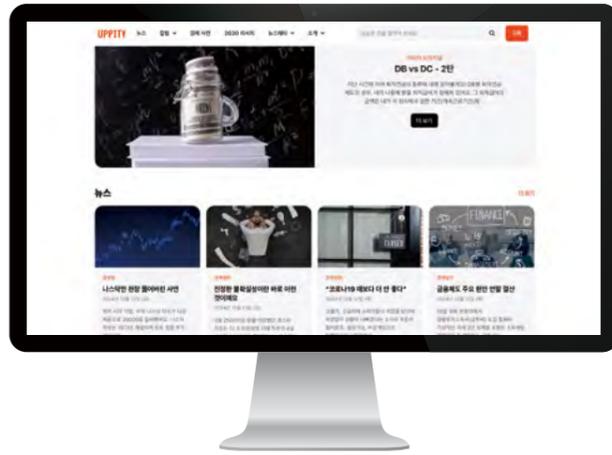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발송되는 ‘오렌지레터’는 각종 사회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알려주는 ‘착한’ 뉴스레터다. 캠페인, 후원, 커뮤니티 관련 소식과 교육, 지원, 채용, 행사, 기사 등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했다. 여기 저기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놓으니 따로 행사나 채용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없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도 선별해 링크를 보내준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은 사회 활동에 관한 자극도 받을 수 있다. 오렌지레터의 슬로건 “혼자만 잘 사는 건 재미 없어”에는 ‘연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오렌지레터는 필진의 짧은 에세이로 시작하는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이태원 거리 걷기를 제안하거나, 겨울에는 숨 고르기 하듯 작은 텃밭을 가꾸보자는 등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



는 일들도 사회적 연대와 연관 지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읽고 있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최근 뉴스

‘라이딩으로 세상을 이롭게’, ‘이태원 걷기’,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경제·금융·재테크 공부 시작하기 어피티

경제 미디어 '어피티'가 론칭한 뉴스레터는 총 세 가지다. 먼저 2018년에 처음 론칭한 '머니레터'다. 머니레터는 평일에 발송되며, 짧은 브리핑으로 시작한다. 오늘의 경제 관련 행사, 증시, 투자·재테크, 장바구니 물가, 세계경제, 부동산 등에 관한 뉴스를 한두 줄로 요약한 브리핑이다. 이후에는 경제·금융과 관련한 요즘 가장 핫한 뉴스 2개가

이어진다. 내용은 길지 않아 읽는 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충분히 심층적이고 자세하다. 이어 경제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어피티의 유튜브 채널 '어피티 온에어'와 연동되는 코너로 마무리된다. 어피티가 그다음 론칭한 뉴스레터는 토요일에 발송되는 '커리어레터'다.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요긴한 뉴스를 선별해 보내준다. 단순 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의 자유 시간이 있으면 행복 할까요?' '실패 없는 N잡러가 되기 위해 답해야 할 네 가지' 등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담은 기획 기사도 함께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어피티는 2024년에 '잘쓸레터'를 론칭했다. 경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뉴스레터다. 잘쓸레터는 소비 트렌드를 다루는 동시에 현명한 소비 방식을 제안한다.

최근 뉴스

'하이브 상장할 때 몰래 4,000억원 번 사람이 있다?'(머니레터), '겨울철 난방비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침실 방한템 모음Zip'(잘쓸레터)



요식업 트렌드부터 오늘 식사 메뉴에 대한 영감까지 매일 한 끼

식문화 트렌드는 언제나 뜨겁다. 인간이 매일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식지 않을 것 같다. 만들어

먹든, 사서 먹든 음식은 매일의 고민이다. 이런 우리의 고민을 덜어줄 뉴스레터도 있다. 바로 식품 회사 오투기가 발행하는 푸드 뉴스레터 '매일 한 끼'다. 매일 한 끼는 코스 요리와 같이 뉴스를 구성했다. 에피타이저에 해당하는 '오늘의 3분 요약' 코너는 요식업계 트렌드를 짧게 요약해 전한다. 메인 디시에 해당하는 '푸드 트렌드'는 요식업 트렌드를 심층 취재한 뉴스다. 이 뉴스와 관련된 레시피를 소개하는 별도의 코너도 있다. 디저트에 속하는 뉴스는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뷰 뉴스다. 식문화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요식업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아니 그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뉴스레터를 주목하자.

최근 뉴스

'김안나는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흥행한 이유?', '이 영상 하나로 아일랜드에서 오이가 사라졌다고?'

트렌드 더하기 트렌드 마케팅

온갖 것을 사고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마케팅 뉴스는 마케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종에서 필요한 상식에 가깝다. 마케팅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마케팅'을 주목할 것. 마케팅은 지금 마케팅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에 발송하는 뉴스레터다. 최근 뉴스 중 하나는 '논란의 중심이 된 코카콜라의 AI 광고'다. 마케팅의 교과서로 불리는 코카콜라가 2023년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처음 선보여 호평받았는데, 이번에 선보인 AI 광고는 웬일인지 호평 대신 비판을 받고 있단다. 마케팅 뉴스레터답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뉴스만 콕콕 집어 전달한다. 트렌드 뉴스 말미에는 항상 '나만의 마케팅 감각 깨우기' 코너에서 독자에게 해당 이슈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구독자 스스로 다양한 이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마케팅 관점으로 바



라볼 수 있다. "여러분은 이번 코카콜라의 AI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뉴스

'2025년에는 끈대가 뜬다?', '현직 마케터가 트렌드 뽑아먹는 유튜브 채널은?'



오케스트라가 오보에 A음으로 조율하는 까닭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한 공연장, 어디선가 맑고 선명한 음이 피어오른다. 거대한 군단 같은 오케스트라가 일제히 그 음에 맞춰 조율을 시작한다. 오보에다.

Writer: 강은진 Photo: 게티이미지뱅크

또렷한음색의 주인공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백조의 호수' 시작 부분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도 익숙한 선율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마치 예고라도 하듯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속삭이듯 악장을 연다. 영화 <미션>으로 가보자. 남미의 거친 생명력이 느껴지는 밀림, 나무와 바위 사이로 가브리엘과 원주민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음악이 화면을 채운다. 바로 가브리엘의 연주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이 익숙한 멜로디를 만들어낸 주인공, 바로 오보에다.

일반인도 대부분 플루트는 잘 안다. 클라리넷까지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보에를 보면 선뜻 악기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잘 알려진 선율들을 들려주면 '이 소리가 오보에였어?'라며 반가워한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익숙한 악기다. 맑고 또렷한 음색이 특징인 오보에는 중세 유럽 교회에서 연주를 금지하기도 했다. 음색이 워낙 매혹적이어서 교회의 신성함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보에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짐작가는 대목이다.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다.

오케스트라 연주회 개막 1분 전, 공연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으로 어수선한 공연장 어디선가 맑고 선명한 음이 피어 오르자 단원들이 일제히 그 음에 맞춰 조율을 시작한다. 조율의 기준음 '라'(A음)를 처음 전달하는 오보에다.

소리 전달력 탁월, 기준음 영예

오케스트라가 오보에의 라음(A음)에 맞춰 조율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또렷한 음색을 꼽는다. 현악기는 온도나 습도에 예민해 대기실에서 무대로 나오기만 해도 음높이가 변하고, 관악기는 다른 악기가 조율할 때까지 한 음을 길게 내기 힘들 뿐 아니라 세계 불면음이 높아진다. 바순은 음이 너무 낮고, 플루트는 음이 퍼지는 경향이 있다. 클라리넷과 오보에는 둘 다 기준음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싱글 리드 악기인 클라리넷보다 더블 리드 악기인 오보에의 소리가 더 또렷해 결국 오케스트라에서 기준음을 제시하는 영예는 오보에가 차지한다. 오보에는 한 음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고, 소리가 안정적이고 멀리 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기준음을 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악기다.

피아노 협연은 상황이 달라진다. 피아노가 있을 때는 악장이 먼저 피아노의 A음에 맞춰 조율을 하면 오보에가 그 소리에 맞추고, 이어 다른 단원들이 그 음에 맞춰 조율한다. 피아노 조율은 88개의 건반을 맞추는 데 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보에가 피아노에 맞춘다. 현악 연주에서는 제1바이올린이 오보에 역할을 하고, 오보에가 없는 경우에는 클라리넷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ستی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ستی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SENIOR &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헤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이심전심 춘천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은 이를 만나면
 한없이 든든해진다.
 변함없는 내 편 같아서 속앓이하던
 이야기도 흘리듯 꺼낸다.
 겨우내 얼었던 실개천이 봄바람에 툭툭 깨지듯
 춘천의 절경에 차가운 마음이 녹는다.

Editor: 정상미 Photo: 이효태

1

공지천 유원지

춘천을 여행하면 곳곳에서 '봄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춘천의 옛 지명 춘주^{春州}를 뜻하는 '봄이 빨리 오는 고을·내'를 한글로 옮겨 춘천=봄내가 된 것. 이름부터 청춘의 싱그러움을 담은 춘천은 이제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될 매력적인 스폿이 산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의암호 상류에 자리한 공지천 유원지. 연인과 함께 탐승해 웃음 파도를 일으키는 한낮의 오리 보트, 밤 호수를 비추는 록카페의 불빛은 공지천 유원지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일대 조각공원, 의암공원,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 기념관, 의암호 둘레길 산책 코스를 두루 돌아볼 수 있으니 춘천 여행의 필수 코스다.

📍 강원 춘천시 근화동 690-1

☎ 033-250-3089



2

레고랜드

춘천에 남이섬과 함께 이름난 섬이 있다. 상중도와 하중도로 이뤄진 중도다. 지난 2022년 5월 세계에서 열 번째로 춘천 하중도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개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약 28만㎡(8만4,700평) 규모의 레고랜드는 가족 맞춤형 테마파크로 레고 시리즈 중 인기가 많은 브릭 스트리트, 레고 캐슬, 레고 시티 등 7개 테마로 꾸며졌으며 실내



3

소양강 스카이워크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 젊은 여성이 있다. 흑산도 아가씨와 소양강 처녀다. 둘 다 노래 제목이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각각 지역을 알리는 데 일등 공신이 됐다. 소양강 가에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애타운 입술에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7m 높이의 소양강처녀상이 높이 5m 받침돌 위에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양강처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소양2교, 왼쪽에는 소양강 쏘가리상과 지난 2016년 개통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자리해 일대는 춘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전체 길이 174m 중 156m 구간의 바닥이 투명 강화유리로 제작돼 소양강을 온전히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다.

☎ 10:00~18:00 ₩ 2,000원

📍 강원 춘천시 영서로 2663 ☎ 033-240-1695

외 놀이기구, 어트랙션, 호텔, 레스토랑을 두루 이용할 수 있다. 그중 미니랜드는 단연코 인상적이다. 100여 명이 1년 반에 걸쳐 춘천 명동, 경주의 동궁과 월지, 청와대, 경북 궁 등 주요 도시와 명소를 브릭으로 제작한 미니어처 세상에 입이 떡 벌어진다. 하중도 남쪽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돼 수변 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동절기 1일 예매권 3만원(온라인 구매 www.legoland.kr)

📍 강원 춘천시 하중도길 128 ☎ 033-815-2300



4 춘천대교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잠시 '물멍'의 시간을 즐긴다. 의암호에 반영된 알록달록한 빛깔의 레고랜드는 동화 속 세상 처럼 신비롭고, 춘천대교는 그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입구로 수려한 자태를 뽐낸다. 지난 2018년 준공된 춘천대교는 총연장 1,058m, 폭 25m의 4차로 교량으로 춘천 시내 근화동과 레고랜드가 자리한 하중도를 잇는다. 의암호를 황금색으로 물들이며 해가 떨어지는 저물녘 풍경과 함께, 일몰 무렵에는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는 경관 조명과 분수 쇼가 펼쳐져 매력을 뽐낸다.

- 🕒 분수 5~10월(일몰 후~22:40)
- 📍 강원 춘천시 근화동 609
- ☎ 033-250-3714



5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만약 그대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리하리라 고백하는 노래가 있다. 달도 별도 잠든 깊은 밤, 춘천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한 듯 의암호의 물색은 푸르다 못해 투명하고, 그 위를 흐르는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는 의암호가 내내 기다린 짝궁처럼 설레는 한 장면을 연출한다. 지난 2021년 10월 개통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는 삼악산(1.61km), 의암호(2km) 구간에 걸쳐 총 3.61km를 왕복 운행한다. 해발 655m에 달하는 삼악산에 오르면 북한강 상류의 의암댐이며 춘천호가 한눈에 들어오니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에서 이 모든 풍경을 오롯이 감상한다.

- ₩ 일반캐빈 대인 2만3,000원, 소인 1만7,000원
- 크리스탈캐빈 대인 2만8,000원, 소인 2만2,000원(편도 탑승 불가)
- 📍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 1588-4888

6 춘천 물레길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 등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자리한 춘천을 일컬어 '호반의 도시'라 한다. '물레길'은 이런 춘천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자 새로운 여행법이기도 하다. 물레길이 땅 위를 여행한다면, 물레길은 물 위를 여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물레길은 지난 2011년 춘천시와 사단법인 물레길이 조성한 여행 코스로, 캐나다 인디언의 전통 방식대로 제작한 우든 카누를 이용해 호반의 도시 춘천의 면면을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다.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코스는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의암댐까지 약 3km 구간으로 1시간가량 걸린다. 이 밖에도 물풀숲길, 철새둥지길, 스카이워크길 등 날씨와 난이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다. 우든 카누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자.

- 📍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 ☎ 033-242-8463



7 해피초원목장

목가적인 풍경으로 OTT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한 신을 차지한 춘천의 히든 스팟이다. 산 중턱 약 23만1,400㎡(7만 평) 초지에 자리한 해피초원목장은 한우 방목장이자 체험 목장으로 사계절 그 맛이 다르다. 하얀 눈 쌓인 목장에는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방문객들과 어우러지고, 한겨울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목장을 가득 메운다. 매표소를 지나면 토끼·닭·소·양·염소·말·당나귀를 차례로 만나고, 울타리 앞에 각각의 간식이 있어 자유롭게 먹이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경사진 언덕에는 마침 눈이 소복이 쌓여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느라 여념이 없다. 방목장으로 향하는 높다란 언덕배기를 오르면 SNS에서 핫한, 춘천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존이 자리한다. 🌟

- ₩ 일반인 7,000원, 어린이 6,000원
- 📍 강원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330-48 ☎ 033-244-2122



테디밸리골프&리조트 이국적인 조경과 다이내믹한 코스의 만남

사계절 내내 푸른 잔디와 뽀뽀한 페어웨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테디밸리CC를 방문할 이유는 충분하다. 거기에 빠른 그린 스피드와 탄탄한 부대시설까지 더해 짧은 역사에도 명문 골프 클럽 반열에 올랐다. 한라산과 산방산, 꽃자왈과 야자수라는 천혜의 자연 요소는 덤이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테디밸리골프&리조트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명문'이란 수식어가 붙은 골프장이 갖춰야 할 요소를 거의 다 충족하는 곳이다. 스피드 3m(스팀프미터 기준)를 넘는 빠른 그린, 촘촘한 페어웨이, 5성급 호텔 같은 클럽 하우스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 단 하나, 귀여운 이름만 빼고. 테디베어는 만화에 나오는 귀여운 곰 캐릭터다. 고급스럽고 점잖아야 할 골프장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곳은 골프장 이름에 '테디'를 넣었을 뿐 아니라 곳곳을 테디베어 캐릭터로 도배했다. 클럽 하우스엔 붉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타이거 우즈 테디베어'도 있고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테디베어'도 있다. 테디

베어들의 귀여움과 제주의 자연이 주는 감동에 정신없이 플레이하다 보니 어느새 시그너처 홀인 밸리 코스 4번 홀(13번 홀·파5)에 도착했다.

1년 내내 푸른 골프장

2007년 문을 연 이 골프장의 주인은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JS&F다. 김정수 회장이 이끄는 JS&F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디베어를 만들었다. 그때만 해도 단순 제조업체였는데 김 회장은 인형을 생산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봤다. 테디베어에 스토리를 입히면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01년 세계 최대 규모 테디베어 박물관이 제주도에 들어선 배경이다. 김 회장의 '축'은 들어맞았다. '제주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 리스트에 오르면서 제주 테디베어뮤지엄은 '대박'을 냈다. 그 힘으로 전국 5곳에 테디베어뮤지엄이 추가로 생겼다. 김 회장의 다음 목표는 골프장이었다. 다들 "골프장은 박물관과 다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말렸지만 김 회장은 밀어붙였다. "친근한 느낌을 주는 테디베어만 한 게 어디 있느냐. 고급스러움은 잔디와 클럽 하우스로 보여주면 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설계는 프로 골퍼 출신 원로 설계자인 김학영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잔디가 365일 파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더했다고 한다. 김 설계가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홀이 있습니다. 적게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1



2

1. 산방산을 배경으로 남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밸리 코스 전경.

2. 테디 코스 9번 홀에서는 한라산 조망이 가능하다.



1

오거스타내셔널GC에서 힌트를 얻었다.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고 사계절 푸른 오거스타내셔널GC의 잔디 관리 방식을 그대로 이식했다. 오거스타내셔널GC의 잔디 관리 핵심은 버뮤다 잔디 위에 ‘오버시딩’(덧파종)을 하는 것이다. 더위에 강한 ‘난지형’ 품종 버뮤다 잔디로 여름을 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한지형’ 잔디인 라이^{Rye} 그래스를 심는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잔디가 서로의 자리를 메우며 사철 내내 푸른빛을 유지한다.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의 경영을 총괄하는 김민 부회장은 “테디밸리처럼 국내에서 1년 내내 푸른 잔디를 유지하는 골프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시딩의 핵심은 완전히 다른 두 잔디가 ‘바통 터치’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골프장을 3~10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도 ‘빛을 내서라도 골프를 치라’는 골프 극성수기인 9월에. 김 부회장은 “그린피가 가장 비싼 시즌에 3일 이상 문을 닫기 때문에 최소 5억원 넘는 매출 손실을 본다”고 귀띔했다.

이 덕분에 골퍼들 사이에서 테디밸리 잔디는 사시사철 언제나 품질이 보증되는 ‘믿을 수 있는 잔디’로 통한다. 무더운 날씨로 많은 골프장의 잔디가 타들어간 올해도 테디밸

리는 무탈했다. 밀도 높은 페어웨이는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그린까지 한눈에... ‘산방산뷰’ 매력

코스는 제주의 매력을 한껏 살렸다. 해발 190m의 낮은 지대에 자리한 덕에 겨울에는 온난하고, 제주 특유의 번덕스러운 날씨가 덜한 편이다. 육지에서 온 골퍼들이 제주에서 가장 골탕 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라산 브레이크’다. 한라산의 경사가 교묘하게 숨어 있어 평지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켜 퍼팅에 애를 먹기 일쑤다. 하지만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제주의 여러 골프장 가운데 한라산 브레이크가 가장 덜한 곳으로 꼽힌다. 18개 홀 모두 티잉 구역에서 그린에 보이는 탁 트인 구조로 골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적지 않은 홀에서 날씨 운만 따라준다면 한라산과 산방산을 감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절대 평이하지는 않다. 곳곳에 워터해저드와 제주의 자연이 만든 덩불이 샷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테디밸리 골프&리조트가 제주를 대표하는 명문 골프장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탄탄한 부대

시설도 큰 역할을 했다. 골프장 맞은편에 자리한 특급 호텔 머큐어 앰배서더 제주는 71실 모두 객실에서 골프 코스와 제주의 자연을 조망할 수 있다. 클럽 하우스에 있는 테디베어 레스토랑은 제주 현지 식재료를 이용해 미식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아쉬움 달라고 기부도 하는 19번 홀

전장이 길지만 티잉 구역이 높지 않아 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밸리 코스 4번 홀. 아름다운 풍경 덕에 이 골프장의 대표 포토 스폿으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캐디의 설명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레드 티에서 475m, 화이트 티에서 522m예요. 2온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왼쪽 호수를 의식해 오른쪽을 보고 쳤다가 밀리면 아웃오브바운즈^{OB}”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2



3

- 1_ 저멀리 산방산이 보이는 밸리 코스 12번 홀
- 2_ 자연과 어우러진 클럽 하우스
- 3_ 테디밸리CC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테디베어는 이곳의 상징이다.

지난해 이곳에서 열렸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우승자 황유민(22)은 최종 라운드 당시 이 홀에서 3온으로 공을 핀 옆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다. 천하의 황유민도 3온을 택한 홀, 욕심을 버리고 페어웨이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 탁 트인 풍경 덕분인지 드라이버는 정타를 맞고 페어웨이 오른쪽 좋은 자리에 떨어졌다. 뻑뻑한 페어웨이를 기분 좋게 밟으며 다가가니 디벗 없이 탄탄한 잔디 위에 공이 곱게 놓여 있었다. 완벽한 잔디를 밟고 자신 있게 휘두른 5번 우드를 맞은 공은 페어웨이 왼쪽 벙커 옆으로 떨어졌고, 세 번째 샷 만에 공을 그린 입구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핀까지 거리는 약 5m. 오랜만에 잡은 버디 찬스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탓인지 유리알 그린에 어울리지 않는 강도로 공을 치고 말았다. 그래도 너그러운 동반자들 덕분에 컨시드 파로 마무리. 제주의 명산 중 하나인 산방산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인 테디밸리에서도 산방산 기운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명당’ 홀이라더니, 이날 따라 좋은 운이 따랐다.

테디밸리를 특별한 골프장으로 만드는 건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19번 홀(파 3)을 팀당 1만 원만 내면 칠 수 있게 해준다. 골프장은 그 돈을 제주도 내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한다. 그래서 19번 홀의 다른 이름은 ‘기부자 홀’이다. 티 간격은 7분이지만 회원(400명)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제주도인 덕분에 극성수기를 제외하면 여유롭게 칠 수 있다. 그린피는 비회원 기준 주중 22만원, 주말 29만원이다. ●



Information

규모 18홀 7,259yd(6,638m)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창로 365
그린 피 주중 22만원/ 주말 29만원(금요일 2부부터)
문의 064-793-1000
홈페이지 www.teddyvalley.com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 나에게 맞는 드라이버 티 높이의 중요성

드라이버 샷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고민인 골퍼가 많다. 일명 뽕샷이나 뱀샷, 슬라이스, 훅 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티 높이만 조정해도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작은 디테일의 변화로 드라이버 샷 정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Writer: 백현범 Photo: 백현범, 프리픽

별거 아닌 부분으로 생각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티 높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티 높이는 단순한 설정 같지만, 골퍼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 티 높이 하나만 바뀌도 스윙과 비거리가 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번 호에서는 가이드를 통해 자신만의 적절한 티 높이를 찾고 이에 따라 스윙과 비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자신의 티 높이가 점검 필요

먼저 본인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만일 인아웃이 심한 골퍼라면 낮은 티에서는 공이 잘 맞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아웃인으로 고생하는 골퍼라면 높은 티에서 하이볼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꾸 티 높이를 낮추게 된다. 만일 본인이 티 높이가 낮은 세팅에서 스윙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스윙 궤적이 약간 바깥쪽에서 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스윙으로 와서 체중을 누르기보다 왼쪽으로 와서 회전하려는 느낌이 강한 골퍼라는 뜻이다. 이렇게 스윙했을 때 똑바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슬라이스가 난다면 이 방법은 중단해야 한다.

반대로 인에서 오는 골퍼는 티 높이를 계속해서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훅이 난다면 이 역시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루빨리 적절한 티 높이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낮은 세팅에서 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헤드 스피드가 빠른 골퍼다.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느리거나 비거리가 안 나온다면 티를 좀 높여서 쳐야 한다. 이런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슬라이스나 훅으로 고민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티 높이를 찾아 스트레스 없는 라운드를 즐겨보자.



백현범 프로의 스윙 강의
드라이버 샷 정타 확률을 높여주는
특급 스윙 강의 영상을 보세요.



높은 티 높이 세팅에서 보이는 올려 치는 느낌의 스윙 자세. 공을 조금 왼발 쪽에 두고 상체에 기울기를 주면서 릴리스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CASE 1_ 과한아웃인 & 슬라이스가 고민인 골퍼라면

우선 티 높이를 높게 설정한다. 공이 헤드 위로 약간 올라오게 티 높이를 조정한 후 왼발 쪽으로 공을 두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이미지를 상상한다. 생각보다 티 높이를 더 많이 올려도 된다. 높이 있는 공을 치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자세와 다른 자세가 나올 것이다. 이때 풀스윙이 아닌 옆에서 치는 이미지만 그리고 끝내는 연습을 한다. 즉, 피니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위로 던져보거나 풀로스루까지만 끊어서 가는 동작을 가볍게 해보는 것이다. 슬라이스가 나거나 찍어 치는 골퍼의 경우 릴리스 동작이 늦게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끊어 치는 연습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릴리스 동작을 강조해 헤드를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 자세가 나올 것이다.

CASE 2_ 과한 인앤아웃 & 훅이 고민인 골퍼라면

티 높이를 낮게 설정한다. 공 위치는 높은 티보다 몸 안쪽으로 설정한 후 공이 헤드와 거의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티를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라도 자연스럽게 눌러 치는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 체중을 왼발로 지지하며 눌러 치려는 동작을 하면 골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올바른 스윙 자세로 자연스럽게 교정될 것이다.



낮은 티 높이 세팅에서 보이는 눌러 치는 느낌의 스윙 자세. 골반 위치를 안정적으로 두면서 스윙을 하게 된다.



올바른 티 높이 연습법

1. 슬라이스 발생 시 교정 연습법

- 높은 티를 사용해 풀스윙하는 대신 부드럽게 헤드를 던지는 연습을 한다.
-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궤도를 그려본다.
- 상체를 뒤에 두고, 릴리스를 느껴보자.

2. 훅 발생 시 교정 연습법

- 낮은 티를 사용해 눌러 치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연습한다.
- 공을 목표 지점으로 정해두고 낮고 빠르게 보내는 느낌을 가진다.

3. 표준 티 높이 찾기

- 공이 헤드 위로 반 개 정도 올라오는 높이를 기준으로 연습한다.
- 스윙 패턴에 따라 높이를 조정해본다.
-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중간값을 찾아 안정성을 높인다.

스윙 자세 교정 효과가 있는 티 높이 찾기

티 높이 설정은 단순한 요소 같지만, 스윙 패턴과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스윙 스타일을 분석하고, 적절한 티 높이를 설정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스윙을 만들어보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티 높이로 연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길 바란다. ●

요약 Point

- 티 높이는 스윙의 핵심 요소**
 - 티가 너무 낮으면 슬라이스와 찍혀 맞는 샷이 발생할 수 있다.
 - 티가 너무 높으면 봉샷이나 훅으로 인해 거리와 방향성이 손실된다.
- 슬라이스를 방지하려면 티를 높게, 훅을 방지하려면 티를 낮게 설정한다**
 - 슬라이스 발생 시 헤드 위로 공을 올려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이미지 연상
 - 훅 발생 시 헤드와 공의 높이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눌러 치는 이미지 연상
- 헤드 스피드에 따라 티 높이 조정 필요**
 - 빠른 스피드에서는 낮은 티
 - 느린 스피드에서는 높은 티
-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적정 티 높이를 찾아보자**
 - 표준 티 높이(헤드보다 공이 반 개 올라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스윙 패턴에 따라 조정하며 일관성을 유지할 것.



오늘 '고급' 와인 한잔?

비싸고 좋은 와인일수록 오래 즐기고 싶고, 가능한 한 여러 와인을 맛보고 싶다. 참 다행인 건 고급 와인을 '잔술'로 판매하는 곳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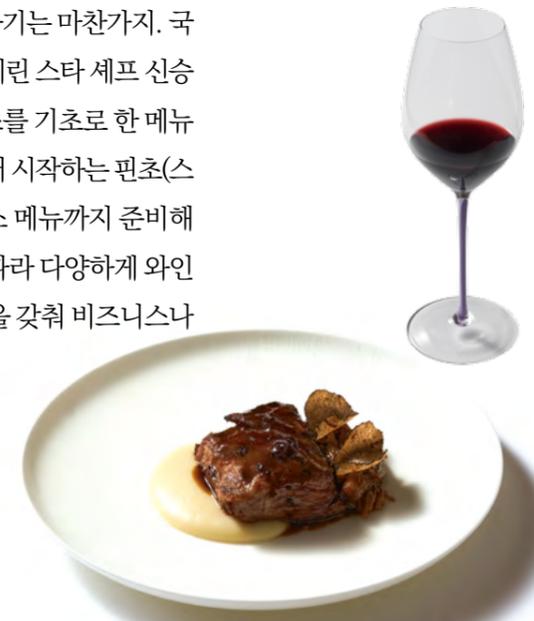
Editor: 이승률 Photo: 이준형

클럽 코라빈

'코라빈'은 2011년 미국 MIT 출신 의료 기기 발명가 그레그 램브렛이 개발한 와인 보존 장비다. 코르크를 제거하지 않고 비활성가스를 주입해 오픈한 와인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미개봉 와인과의 거의 동일하게 느껴질 만큼 신선도 유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6층에 자리한 '클럽 코라빈'에서는 이 코라빈을 활용해 모든 와인을 잔술로 판매한다. '샤토 라피트 로실드'와 '샤토 무통 로칠드' 등 프랑스 5대 샤토 와인부터 부르그뉴 그랑 크뤼, 이탈리아 수퍼 투스칸을 비롯해 무려 700여 종의 와인을 글라스로 맛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비싼 300만원대 프랑스 부르그뉴산 레드 와인을 글라스로 주문하면 40만원 정도, 최저

가 잔술은 7,000원부터 시작한다. 25ml에서 150ml까지 잔술의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뿐 아니라 소믈리에가 상주해 와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와인과 어울리는 메뉴도 특별하기는 마찬가지. 국내 유일 스페니시 푸드 미쉐린 스타 셰프 신승환이 주방을 담당해 타파스를 기초로 한 메뉴를 선보이는데 3,000원부터 시작하는 핀초(스페인식 핑거푸드)부터 코스 메뉴까지 준비해 혼술 혹은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 2개의 룸을 갖춰 비즈니스나 프라이빗 미팅도 가능하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잠실롯데에비뉴엘 6층
☎ 02-3213-2629



탭샵바 여의도

‘와인을 아메리카노처럼?’ 이 같은 모토를 표방한 와인 공간 ‘탭샵바’가 여의도에 문을 열었다. 동대문·청계천·도산대로점에 이어 네 번째다. 탭샵바는 기계를 이용해 생맥주처럼 다양한 와인을 즉석에서 내려 맛볼 수 있는 ‘탭’ 공간과 1,000여 종의 보틀 와인을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는 ‘숍’, 여러 가지 와인 페어링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바’가 결합한 콘셉트다. 다시 말해 탭에서 와인을 테이스팅하고숍에서 보틀로 구매한 뒤 바에서 안줏거리를 사서 먹을 수 있다.숍에서 구매한 와인은 가지고 갈 수도, 탭샵바 공간에서 추가 비용 없이 마실 수도 있다. 일종의 정육 식당 같은 구조랄까. 정육 식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잔술만 마셔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잔술은 자체 개발한 디스펜서(액체 자동 분배 기계)를 사용하는데, 엔트리 레벨부터 그랑 크뤼급 와인까지 50여 종이 준비된다. 국내 100여 개 와인 수입사로부터 와인을 매입해 대중적인 와인뿐 아니라 희소 제품까지 와인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다. 한식을 베이스로 한 메뉴도 사랑거리다. 합리적인 가격의 30가지 메뉴를 선보이는데 탭샵바의 자랑인 ‘오이스터 바’에선 매일 통영 현지에서 직배송된 싱싱한 굴을 내고, 천안 목장에서 날마다 들여오는 신선한 부라타 치즈를 쓴다.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브라이튼 여의도 1층
- ☎ 02-784-3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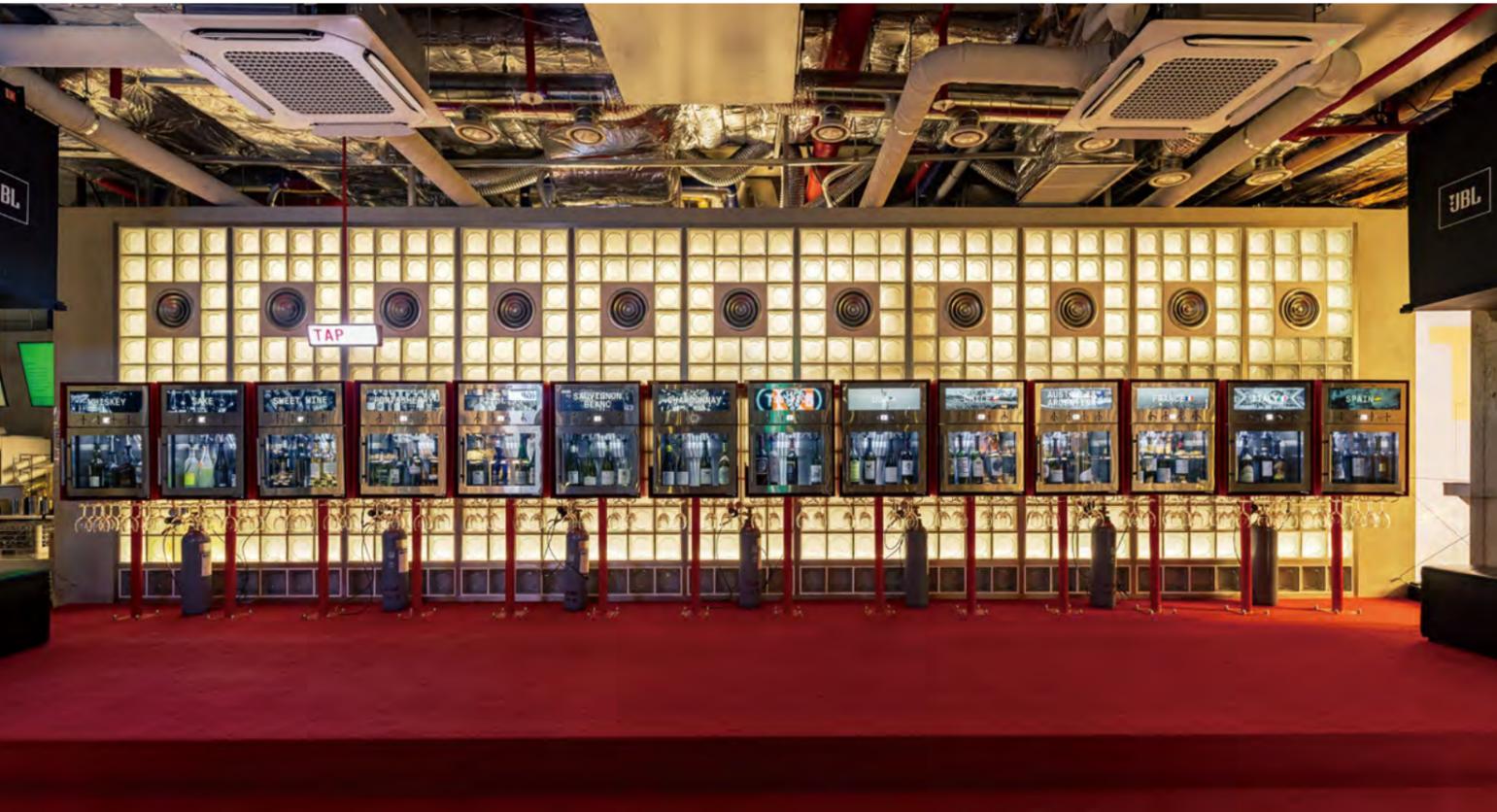


비노탭 시에나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특히 벽돌을 이용한 아치형 입구와 벽에 걸린 오크통이 프랑스 어느 와인 지역의 카브(와인 동굴)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쪽 벽에는 와인 디스펜서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48종의 와인을 잔술로 즐길 수 있다. 한 잔에 6,000원짜리 데일리 와인부터 프랑스 5대 샤토 중 하나인 ‘샤토 마고’와 미국 컬트 와인 ‘오퍼스 윈’, 이탈리아 슈퍼 투스칸 ‘사시카이아’ 등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까지 라인업이 매우 다채롭다. 특히 프리미엄 와인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와인잔 브랜드 ‘리텔’의 글라스를 제공한다고. 와인 리스트는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와인

을 마실 수 있다. 와인과 곁들일 음식은 ‘세계 미식가협회 국가대표 출전 4위’를 기록한 강지영 셰프가 책임지는데, 한우 라구 파스타와 시칠리아식 포향문어 야채절임 등 우리 식재료를 서양식으로 풀어낸 요리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와인을 보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비노탭 시에나’만의 특별한 즐거움이다. 이를테면 와인 디스펜서 안에 라벨이 가려진 와인을 테이스팅해보고 품종과 생산 지역을 맞히면 해당 와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등을 진행한다. ☺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42, 지하 1층
- ☎ 02-543-5050



식사의 즐거움을 더하는 와인 마리아주 Dish with Wine

대부분의 와인은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리 역시 와인과 함께할 때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음식 중 만들기
쉽고 와인과 잘 어울리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Editor: 지연 Cooperation. <푸드 & 와인 페어링 콕북>(정리나·백은주 지음, 한스미디어)

돼지고기 마늘종 라이스페이퍼말이 With 화이트 와인

베트남의 인기 길거리 음식인 반짱느엉을 한국의 고추장 소스로 변형해 만든 요리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좋아 한번 먹어보면 자꾸 찾게 되는 메뉴다.
고추장과 향신료, 돼지고기가 넉넉히 들어간 이 요리에는 산뜻한 과일 향과
미네랄리티가 있는 리슬링 품종 와인이 잘 어울린다.

재료(2인분)

라이스페이퍼 4장, 달걀 4개, 다진 돼지고기 200g, 마늘종 50g, 쪽파 15g, 식용유 1큰술, 홍고추 10g,
고수 5g, 라임 적당량(옵션)

양념장 고추장 1작은술, 설탕 ½작은술, 참기름 2큰술, 후춧가루 ¼작은술

만들기

- 1 마늘종, 쪽파, 홍고추는 잘게 송송 썰어준다. 고수는 잎만 따서 준비한다.
- 2 볼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고 잘 섞는다.
- 3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종과 돼지고기를 볶는다.
- 4 양념장을 넣고 잘 볶은 다음, 팬에서 꺼내 식힌다.
- 5 볼에 든 식힌 마늘종, 돼지고기에 달걀과 쪽파를 넣고 잘 섞는다.
- 6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프라이팬에 불리지 않은 라이스페이퍼를 올린다.
- 7 라이스페이퍼의 가장자리가 말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 돼지고기 믹스를 붓는다.
- 8 달걀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 위에 홍고추와 고수를 올리고, 반으로 접어준다.
- 9 기호에 따라 라임을 곁들여 낸다.



라이스페이퍼 위에 달걀을 깨서 골고루 바른 후 다양한 토핑을 올리면 레시피와 또 다른 느낌의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미나리 감자 뢰스티
With 스파클링 와인

스위스 전통 요리인 뢰스티는 감자를 바삭하게 구워내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감자전과 많이 닮았다. 채 썬 감자 위에 달걀, 베이컨, 치즈를 올려 다양한 맛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재료가 한데 섞인 메뉴에는 스파클링 와인이 최적의 페어링이다. 샴페인, 독일의 쟁트,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그리고 신대륙의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한다.

재료(2인분)

감자 150g, 양파 100g, 달걀 3개, 하몽 10g, 미나리 20g, 부침 가루 1큰술, 소금 ¼작은술, 후춧가루 ¼작은술, 식용유 1큰술

만들기

- 1 하몽은 먹기 30분~1시간 전에 상온에 빼놓는다.
- 2 감자와 양파는 가늘게 채 썬다.
- 3 볼에 채 썬 감자와 양파, 소금, 후춧가루, 부침 가루를 넣고 섞는다.
- 4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올린다.
- 5 중불에서 반죽을 천천히 익힌다.
- 6 감자가 반쯤 불투명하게 익으면, 젓가락으로 달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다.
- 7 반죽 사이사이에 달걀을 깨서 넣는다.
- 8 뚜껑을 덮어 달걀을 익힌다.
- 9 완성된 뢰스티 위에 미나리와 하몽을 올려 낸다.



감자전처럼 묽지 않은 반죽이다. 감자 자체의 전분과 부침 가루의 전분만으로도 모양이 잘 잡힌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이용하거나 하몽 대신 베이컨을 볶아서 올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그뤼에르나 체더,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가 있다면 감자가 거의 다 익었을 때쯤 뿌리면 더 고소하고 풍미 있는 뢰스티를 만들 수 있다.



부추 깻잎 소고기말이
With 레드 와인

손질된 재료를 미리 돌돌 잘 말아두었다가, 가볍게 문혀 구워내는 이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손님 초대나 특별한 날의 상차림에 활용하기 좋다. 허브 향이 강한 레드 와인은 대체로 채소를 곁들인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린다.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카베르네 프랑 품종으로 만든 레드 와인, 칠레의 카르메네르 품종 와인을 추천한다.

재료(2인분)

샤부샤부용 소고기 200g, 깻잎 10g, 부추 50g, 감자 전분 1컵, 소금, 후춧가루 적당량, 식용유 1큰술
매실 겨자 양념장 연겨자 1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작은술, 간장 1큰술, 물 1큰술

만들기

- 1 볼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담고 잘 섞어 놓는다.
- 2 소고기는 키친타월에 올려 핏물을 제거한다.
- 3 핏물 뺀 소고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골고루 뿌린다.
- 4 깻잎은 반으로 자르고, 부추는 고기보다 조금 길게 잘라 준비한다.
- 5 소고기 위에 깻잎을 놓고, 부추를 올린 다음 손으로 돌돌 말아준다.
- 6 소고기말이에 전분 가루를 묻히고, 살짝 털어준다.
- 7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고기를 올린 다음, 빠르게 골고루 뒤집어가며 익힌다.
- 8 완성된 소고기말이를 접시에 담고, 매실 겨자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이 요리는 담백하고 그다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레드 와인 역시 무게감이 가벼운 것이 잘 어울린다.



참기름 간장 아이스크림
With 디저트 와인

미쉐린 레스토랑의 디저트를 집에서도 만들기 쉽게 응용한 메뉴다.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의외의 단짠 조합을 즐길 수 있다.
이 메뉴에는 스페인의 주정 강화 와인인 세리를 추천한다. 세리는 진한 견과류나 캐러멜 향이
나서 마치 아이스크림에 시럽을 뿌린 듯 풍미가 더욱 조화롭게 느껴진다.



재료

바닐라 아이스크림 100g, 피칸 5g, 참기름
½큰술, 간장 ¼작은술, 장식용 애플 민트(옵션)

만들기

- 1 피칸은 굵게 다진다. 애플 민트잎은 가위로 반
잘라 준비한다.
- 2 디저트 컵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담는다.
- 3 아이스크림 위에 참기름과 간장을 뿌린다.
- 4 피칸을 듬뿍 올리고, 애플 민트를 올려
장식한다.
- 5 아이스크림을 참기름, 간장, 피칸과 함께 섞어
먹는다.



피칸의 고소함과 아이스크림의 달콤함,
참기름·간장의 감칠맛까지 화려한
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다.
단맛을 선호하면 스위트 스타일의 크림
세리를, 무난한 맛을 원하면 드라이
스타일의 아몬티야도나 올로로소 세리를
추천한다. 세리는 참기름이나 간장
베이스의 양념과도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와인이므로 다른 메뉴에서도 도전해보길
바란다.

닭고기 마늘종 카차토레
With 레드 와인

이탈리아 사냥꾼들이 즐겨 먹던 요리인 '폴로 알라 카차토레'를 심플한 버전으로 만들어본
요리다. 부드러운 닭 다리살과 시판 토마토소스를 활용해 조리 시간을 줄이고 가지와 마늘종,
모차렐라 치즈를 더하니 닭갈비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탈리아의 키안티 와인이나
바르베라 품종 와인 등 이탈리아산 미디엄 보디 레드 와인과 페어링하기를 추천한다.
밥이 없어도 식사 대용이 가능하다.

재료

가지 150g, 마늘 30g, 마늘종 70g, 토마토소스 1컵,
생바질 10g, 생모차렐라 치즈 125g, 소금 적당량,
후춧가루 적당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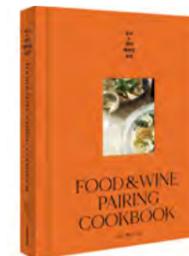
만들기

- 1 가지는 한입 크기로 자른다. 마늘종은 5cm
길이에 썰고, 마늘은 통으로 준비한다.
- 2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노릇하게 굽는다.
- 3 닭 다리살을 팬에 껍질 쪽부터 올려 노릇노릇
굽는다.
- 4 가지와 마늘종을 넣고 함께 익힌다.
- 5 토마토소스를 넣는다. 중불에서 닭고기의
안쪽까지 잘 익힌다.
- 6 모차렐라 치즈를 듬성듬성 올린다. 뚜껑을
덮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다시 한번 익힌다.
- 7 소금, 후춧가루 간을 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뿌리고, 바질잎을 올려
마무리한다.
- 8 구운 빵이나 바게트를 곁들여 낸다. 🍷



<푸드 & 와인 페어링 콕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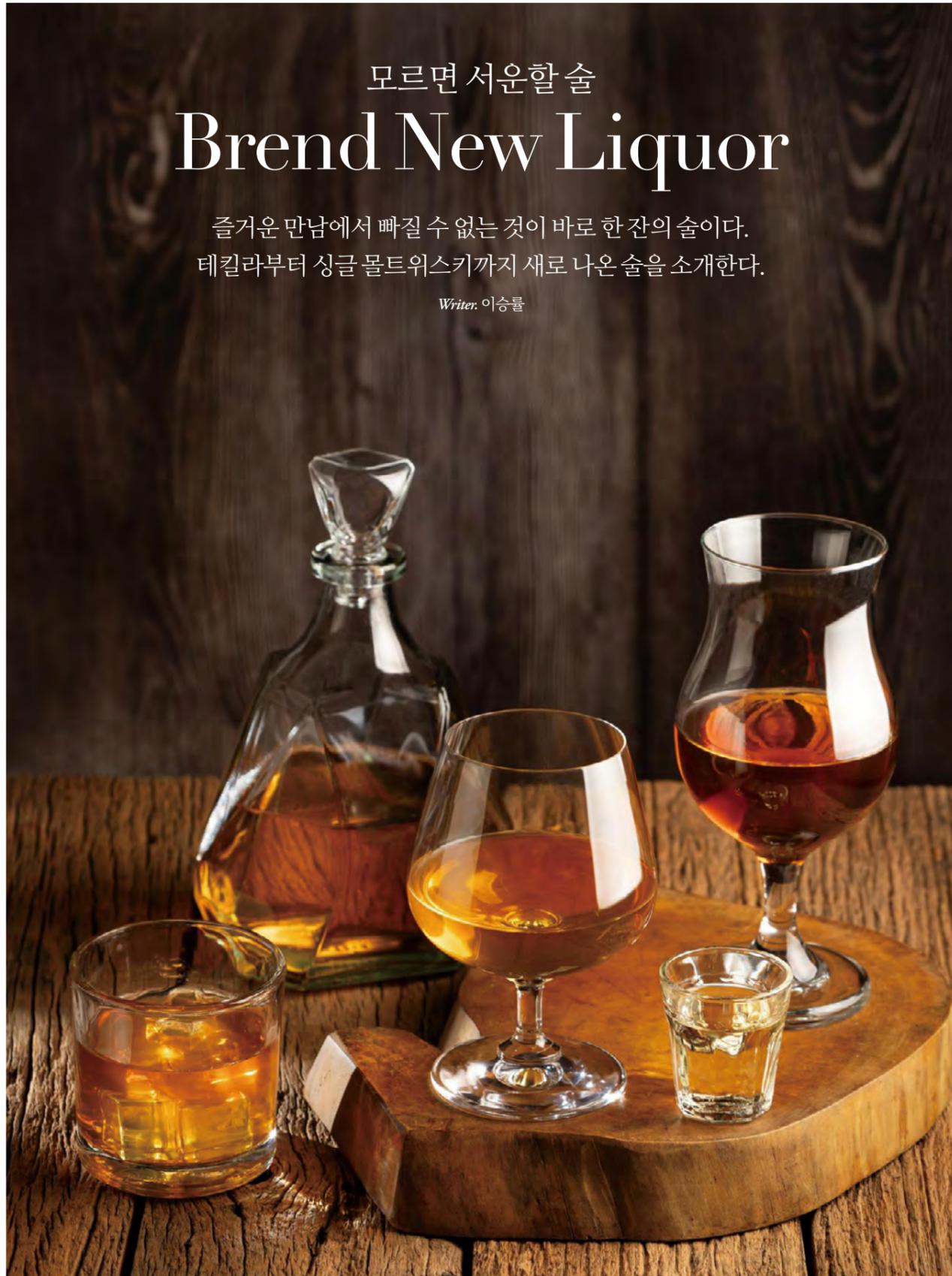
푸드 디렉터로 활약하며 청담동에서 와인 바를 운영하는 정
리나 디렉터와 쉽고 재미있는 와인 강의로 유명한 백은주 교
수가 함께 쓴 책으로,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과
와인 페어링'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와인을 좋아하
지만 평소 어떤 음식과 매칭해야 할지 어려웠다면, 내가 좋
아하는 와인을 어떻게 하면 음식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지 궁금하다면 이 책이 최고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모르면 서운할 술 Brend New Liquor

즐거운 만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잔의 술이다.
테킬라부터 싱글 몰트 위스키까지 새로 나온 술을 소개한다.

Writer: 이승률



클라세 아줄 울트라

클라세 아줄은 엄정화, 이효리, 이혜영 등 이른바 패셔니스타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유튜브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테킬라. 새로 출시한 '클라세 아줄 울트라'는 그중에서도 최상급 제품으로 아가베 재배부터 최종 병입까지 무려 14년의 정교한 제조 단계를 거쳐 완성했다. 최상급 프리미엄 블루 아가베만을 사용하고, 전통 방식의 석조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구워 만드는데 이후 5년이라는, 테킬라치고는 매우 긴 숙성 기간을 거친다. 숙성에는 버번과 셰리 오크통을 모두 사용해 달콤한 과일과 바닐라, 시나몬의 향이 조화롭게 어울렸다. 술병 역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기는 마찬가지. 검은색 도자기 표면은 플래티넘과 24K 골드, 실버 등 세 가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장식했다.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6년 스몰배치

발렌타인에서도 싱글 몰트 위스키가 나온다. 200년 넘게 발렌타인 위스키의 부드러움과 달콤한 맛을 책임져 온 글렌버기 증류소의 원액만을 담아 만든다. 신제품 '발렌타인 싱글 몰트 글렌버기 16년 스몰배치'는 발렌타인 싱글 몰트 위스키 최초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물에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병입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을 채택해 59.8%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데, 의외로 잘 익은 붉은 사과와 블랙커런트 잼 등의 달콤한 풍미가 반전의 맛을 선사한다. 한국에서만 공개하는 제품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더 디콘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글렌리벳 등으로 유명한 페르노리카에서 아주 재미있는 위스키를 출시했다. '더 디콘'이 그 주인공. 우선 이 위스키는 블렌디드 위스키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는 블렌디드 위스키와 달리 오직 몰트 위스키만을 조합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맛과 향이 대조적인 스코틀랜드 아일라 지역 위스키 원액과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원액을 블렌딩했다는 것. 아일라 위스키 특유의 스모키한 피트 향과 과일의 달콤함으로 대변되는 스페이사이드 지역 위스키의 맛이 혼재하는데, 신기하게도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달콤한 맛이 느껴지다가도 스모키한 향과 스파이시한 맛이 치고 올라오는데, 목 넘김과 뒷맛은 또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글렌모렌지 시그넷 리저브

2008년 처음 출시한 글렌모렌지 시그넷은 두터운 마니아층을 자랑한다. 인기 비결은 이른바 초콜릿 몰트라 불리는, 로스팅 과정에서 비롯된 독특한 풍미 때문이다. 커피처럼 보리를 천천히 볶으면서 만들기 때문에 글렌모렌지 특유의 달콤한 향 뒤로 에스프레소와 밀크 초콜릿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른다. 신제품 '글렌모렌지 시그넷 리저브'는 여기에 풍미를 한 겹 더 입혔다. 셰리의 왕이라 불리는 페드로 히메네스(Pedro Ximenez) 오크통에서 추가 숙성 과정을 거친 것. 혀 위에 한 모금 머금으면 진한 다크 초콜릿의 달콤 씹살한 맛이 '훅' 들어오는데, 이윽고 묵직하게 치고 오는 토피와 퍼지, 티라미수 등의 복합적인 풍미가 인상적이다. ☪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른 근육 이제는 근테크 시대

재테크를 넘어 근테크의 시대다. 젊을 때 미리미리 챙겨놓은 근육 저축은 질병 예방 및 노화 방지, 수명 연장까지 실익이 다양하다. 이렇게 손실 없는 완벽한 투자가 또 있을까.

Editor: 강은진 Photo: 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서울아산병원

연금보다 강한 근육?

‘근육 저축’, ‘근육 연금’, ‘근육 적금’ 등 근육과 관련해 온갖 금융 용어를 붙인 말들이 쏟아진다. 모두 노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른바 근테크다. 근육과 재테크를 조합한 신조어로 젊을 때 근육을 다져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요즘 최고 건강 이슈로 손꼽히는 주제다. 한낱한시에 태어났어도 사람마다 노화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면 ‘누구더라?’ 하며 알아보지 못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또 누군지는 알지만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심심찮게 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수치의 변화는 바로 근육량 감소다. 특히 노년의 근육 부족은 수명과 직결된다. 큰 병치레 한 번에 근육이 빠져 팔다리가 흠뻑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비축해둔 근육이 없다면 바로 휠체어 신세다. 근육이 빠지면 보통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근육량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도 커지는데, 뼈마저 약해진 상태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이어져 와병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낙상이다.

근육 감소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고, 노년층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근육량은 30대에 정점을 이룬 후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해 60대 이상은 30%, 8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절반까지 줄기 때문이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젊을 때부터 돈을 저축하듯, 근육도 미리 꾸준히 키워놓아야 노쇠를 막을 수 있다.

근육 감소, 엄연한 질병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감소하는 걸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연한 질병이다. ‘근감소증’이다.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근감소증에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했다. 이어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근감소증에 진단 코드를 부여해 질병으로 분류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 기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단백질 섭취 저하·운동량 부족·운동 방법의 저하 등이다. 특히 필수아미노산의 섭취와 흡수가 부족해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또 다른 흔한 원인으로는 노화와 동반된 호르몬 부족이다.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에 있다.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다리가 휘청이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는 등 신체 활동이 저하되다, 심한 경우 사소한 움직임에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더불어 뼈와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 골격계가 받는 압박이 커져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안정성은 줄어들면서 낙상과 골절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혈압·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증가하며, 근육으로 구성된 소화기관 연하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감소증 여부를 알기 위해선 신호등을 제한 시간 내 건널 수 있는지, 페트병 뚜껑을 딸 수 있는지, 허벅지와 종아리 두께가 가늘어지지 않았는지, 자주 넘어지는지, 계단을 10개 이상 오르기 힘든지 살피면 된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누구나 겪는 노화의 한 현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가들은 고령일수록 걷기나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 유산소운동과 함께 계단 오르기, 스쿼트, 플랭크, 런지 같은 근력운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20~30대는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7:3 비율, 60~70대는 3:7 비율을 권장한다.

”

핵심 치료법은 오직 '운동'

근감소증은 엄연한 질병이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의학적 치료와 운동, 영양의 삼박자가 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운동은 핵심적인 치료법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일수록 걷기나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운동과 함께 계단 오르기, 스쿼트, 플랭크, 런지 같은 근력 운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20~30대는 유산소운동과 근력 운동을 7:3 비율, 60~70대는 3:7 비율을 권장한다.

실제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코어·하체 근력 운동을 하루 10분씩 꾸준히 1년간 하면 근력이 20% 늘어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 인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이다.



단백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다. 단백질은 인체의 성장과 생리 기능 및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들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 질환에 더 잘 걸린다. 매일, 끼니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이 밖에도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체중이 계속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섭취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먹는 양을 늘려 충분히 열량을 섭취해야 한다. 노년에 과체중을 유지해야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급변한다.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양질의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며 노력하지 않으면 근육이 갑자기 확 줄어든다. 죽는 날까지 남의 도움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지금 바로, 근테크를 시작해야 한다. 운동만큼 확실한 이익을 얻는 투자는 없으므로! ●

기억해두면 좋은 근테크 꿀팁 4가지

- 1. 체력 확인하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으로 체력 측정, 체력 평가, 운동 처방 및 체력 인증을 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 체력부터 확인해보자.
- 2. 근력 운동** 달리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운동 이외에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등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한다.
- 3. 단백질 섭취** 근육을 위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영양 보충이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강조해야 한다. 최소 주 3회는 육류를 섭취해야 하며, 콩·두유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도움이 된다.
- 4. 꾸준한 헬스케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꾸준한 건강관리, 운동, 영양 섭취를 관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EALT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독주

지난 2년동안 보인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독주는 빅테크 분야의 성장과 함께 일부 몇몇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과연 2025년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

Writer: 박석현(우리은행 WM솔루션부 투자전략팀 Equity Analyst) Photo: 프리픽, 한경DB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500지수는 2024년 26.9%(12월 13일 기준) 올랐다. 2023년 +24.2%에 이어 2년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이는 2024년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뒤쳐진 KOSPI와 KOSDAQ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주요국 주식시장에 비해서도 월등한 성적에 해당한다.

2023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 상승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가 상승이 일부 몇몇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Magnificent 7'으로 일컬어지는 7개 종목(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이 이에 해당한다.

S&P500지수 시가총액은 2022년말 33.5조 달러에서 2023년말에는 41.7조 달러로, 2024년 12월 13일 기준 53.2조 달러로 주가 상승과 함께 2년째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Magnificent 7 시가총액은 6.9조 달러('22년말), 12.0조 달러('23년말), 18.1조 달러('24년 12월 13일)로 S&P500지수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S&P500지수 시가총액 증가분에 대한 이들 7개 종목을 기여도가 2023년 62%를 기록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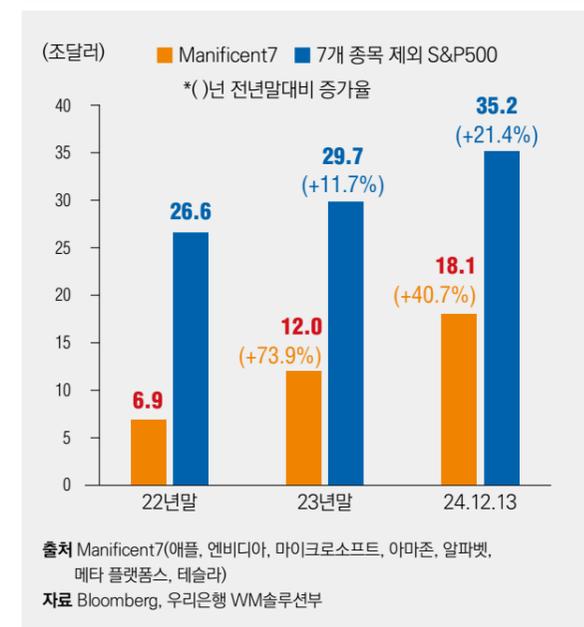
“ 2024년 12월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S&P500기업 올해순이익은 전년대비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Magnificent 7은 +32.0%로 높은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S&P500 기업 순이익 증가율은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어 2024년에도 12월 13일까지 52%를 기록하며 미국 주식시장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다. S&P500지수(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 503개 구성종목 중 단 7개 종목이 지난 2년간 미국 주식시장 급등세를 주도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미국 주식시장 핵심 빅테크 주가수익률 독주는 기업이이익 성장을 반영한 결과

'주가는 기업이이익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이들 7개 기업의 두드러진 주가 상승은 그만큼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조9,851억 달러를 기록했던 S&P500지수 순이익은 2023년 1조9,973억 달러로 0.6%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7개 기업 순이익은 33.5% 급증하며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S&P500 모든 기업 순이익이 오히려 5.1% 줄어든 것과 뚜렷한 대비를 보여줬다. 이익 성장 차별화는 2024년에도 지속됐다. 2024년 12월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S&P500기업 올해순이익은 전년대비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Magnificent 7은 +32.0%로 높은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7개 종목을

미국 S&P500지수 연도말 시가총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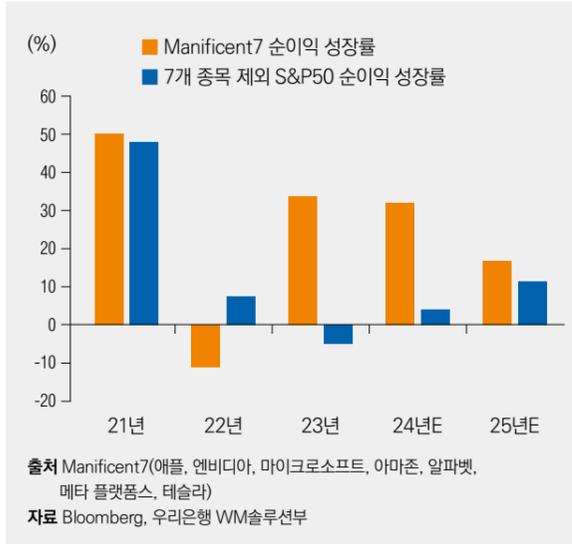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우려되고 있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미국 외 지역 성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제외한 나머지 S&P500 기업 순이익 증가율은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agnificent 7으로 대표되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미국 주식시장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결국은 이제까지 주가 움직임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기업 이익 추이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2025년 S&P500기업 순이익은 2조4,676억 달러로 2024년보다 1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agnificent 7 순이익이 6,070억 달러, 7개 종목 중 5개는

미국 S&P500지수 연도별 순이익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위한 나머지 S&P500 기업 순이익은 1조8,6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보다 각각 16.9%, 1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S&P500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Magnificent 7 순이익 비중은 2024년 23.7%에서 24.6%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이익 변화는 2025년 미국 주식시장 움직임이 직전 2년간 두드러졌던 일부 빅테크 기업에 집중된 상승세를 이어가기 보다는 상승 주도주가 다변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2025년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변화 요인

한편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2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큰 폭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본격화될 경우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이익 성장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적 주가 흐름

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우려되고 있는 급격한 정책 변화가 미국 외 지역 성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율 큰 폭 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2025년 연준 금리 인하 경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럴 경우 미국 기업이익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이는 고평가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높아진 미국 주식시장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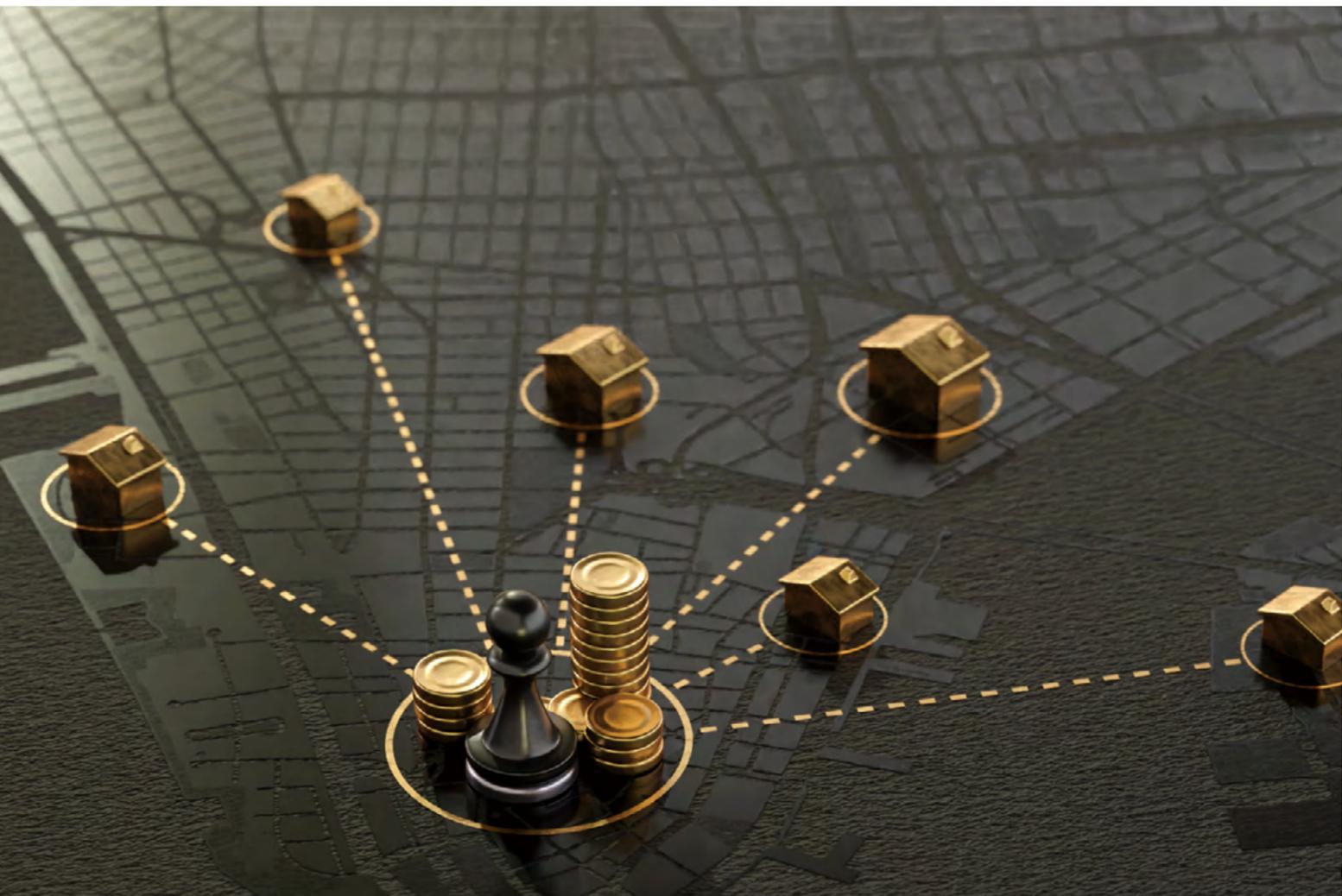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투자전략팀 Equity Analyst

서울 부자를 통해 알아본 2025 주택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3고^高 시대를 맞아 대중의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반면, 자산가들의 부동산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시기,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가들의 투자전략을 알아본다.

Writer: 남혁우(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건설팀 부동산전문가) Photo: 프리픽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시대를 맞아 인플레이션 현상과 금리인상이 자산시장에 가져다준 충격 여파가 남아서일까? 2024년 중동전쟁,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 등 외생 경제 변수와 함께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은 회복과 조정을 반복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움츠러든 대중 투자심리와 달리 자산가들의 경우 부동산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부자 보고서(주요 시중은행 및 증권사 발행 리포트 참고)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서울 거주 부자들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산 중 부동산투자 의향이 43.7%로 가장 높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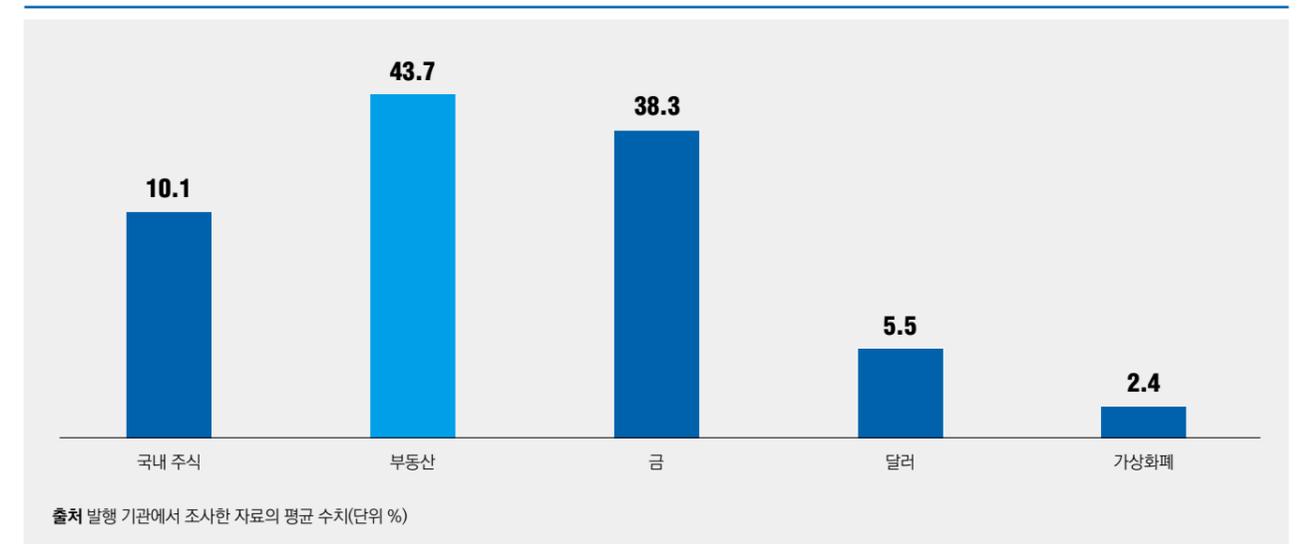
자산가들이 부동산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리스크와 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란 돈(화폐)의 가치하락에 따라 물건 등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손실을 실물 가치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등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해 늘어난 금융비용을 충당하거나, 장기보유를 통해 경기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빌딩, 구분상가 등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아파트와 구분상가 등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이 빌딩이 아닌 '아파트'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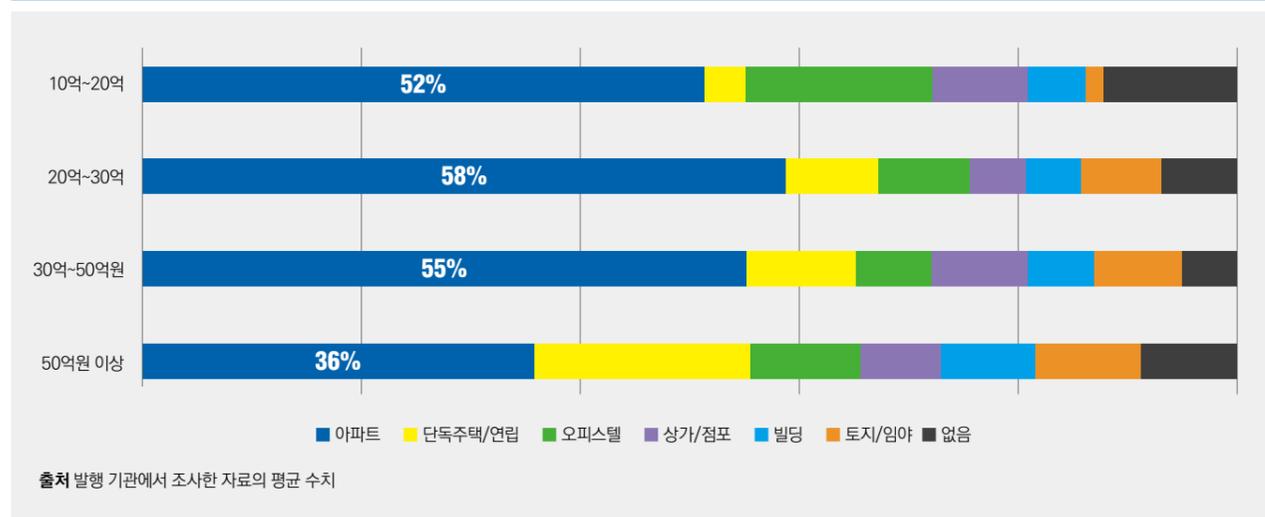
고금리 시대, 부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투자가치: 인플레이션 '대응'과 높은 '안정성'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빌딩, 구분상가 등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아파트와 구분상가 등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이 빌딩이 아닌 '아파트'라는 것이다. 2024년 부자 보고서(주요 시중은행 및 증권사 발행 리포트 참고)에 따르면 서울 부자

[그림 1] 서울 거주 부자들의 투자 의향(2024년 9월 기준)



[그림 2] 서울 거주 부자들의 투자 의향(2024년 9월 기준)



들의 경우 10억~50억원 이상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다.[그림 2]

부자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꼬마)빌딩의 경우 5~9%의 낮은 투자 의향을 보였다. 빌딩 구입 시 통상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취약하고, 공실 등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임차료 손실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파트는 매매 또는 임대차를 통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필수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탄탄하고,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를 활용해 금융비용 리스크 헤지가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 핵심지역 내 위치한 재건축·신축 아파트'는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투자상품이다. 올해 강남 등 핵심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신고가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지와 (미래)상품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잠재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 대체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희소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다시 말해 한정된 공급과 풍부한 대기수요로 인플레이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이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가 선호하고 있다.

2025년 주택시장 여전히 큰 변동성 전망, 부자 사고방식 탐색 필요

2025년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중·물가 현상이 여전히 데다 설상가상으로 '정책, 금리, 대출' 요인마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3고^궤 시대'다. 예상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며,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설령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고, 향후 중금리 시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부담은 서서히 낮아지겠지만,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구입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사업,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책 추이 역시 불확실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이연하는 도정법 개정이나 다주택자 증과세 원천 철폐 등은 여야가 각론에 이견이 있어 정책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



분간 지속될 3고^궤 시대, 내 집 마련 또는 주택투자를 결심했다면 부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를 기억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자산가처럼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 투자를 고민할 때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덕분에 아파트만 샀다면 돈을 벌었던 '부동산 불패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한동안 부동산시장은 금융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향을 예측하고 선점하는 공격적 투자보다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장기보유를 통해 부동산 경기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리스크(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축소)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 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전셋값 상승이나 신생아 특례 저리대출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와 상품이 무엇인지 우선 고민해보아야 한다. 가격 회복이 덜하거나, 급매·분양·경매 등 가격만족도가 높은 선택지가 있

다면 금상첨화다. 단기 매매거래보다 '긴 호흡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한두 건의 거래 또는 단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치와 상관없이 형성된 시세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순간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안정적 상품으로 선블리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신축 아파트보다 전 고점 대비 가격 회복이 더디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우수하거나 가시화된 교통 호재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지는 '환금성 좋은 역세권 구축 아파트'가 때론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컨설팅팀 부동산전문가



다른 소득이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

고금리 시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처음 해보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 종합소득 신고는 하되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이자·배당소득 수준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Writer: 김성욱(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고금리·고배당 금융상품으로 인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다수 발생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 대상자가 늘어났다. 물론 국내외 고배당 투자상품도 한몫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었던 고객은 이런 국세청의 통보에 더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연도 5월에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도대체 연간 이자소득이 어느 수준까지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지, 또는 배당소득도 같이 받는 경우 어느 수준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이 복잡한데 이를 배워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금 어렵더라도 다음 내용을 여러 번 정독하길 권장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일반적으로 연간 지급받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금융기관·법인)가 14%(지방소득세 1.4% 별도) 원천징수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부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받는 부분은 2,000만원 초과분이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전액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기는 하지만, 실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부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은 6%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나 금융소득 세액 계산상 원천징수세율인 14%보다 낮게 적용할 수 없어 14%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3,000만원 전액이 14%로 계산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이외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 소득세율 중 낮은 구간(표 1 중 6%, 15%, 24% 정도)을 고루 적용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인 14% 적용과 동일한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그 금액을 계산해보겠다(종합소득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가정).

[표 1] 종합소득세율(2024년 귀속)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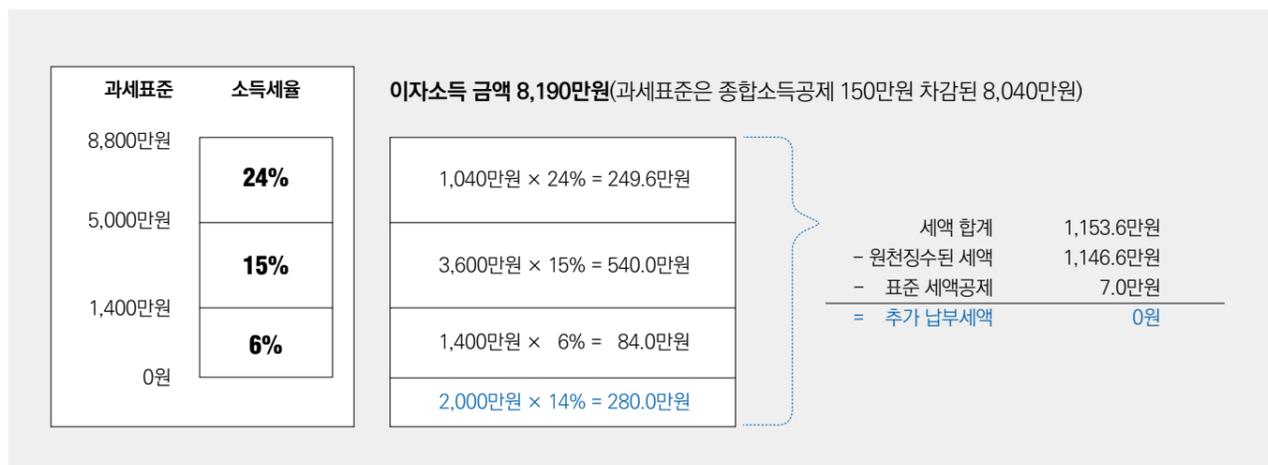
시뮬레이션 1

**이자소득만 있으면 연간 8,190만원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

올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8,190만원까지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표 1]과 같은 과세표준 구간으

로 개정되기 이전인 2022년 귀속분까지는 이자소득만 7,65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참고했으면 한다. [그림 1]과 같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액 합계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14%(지방소득세 1.4% 별도)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0원이 된다.

[그림 1]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를 적용 방식 예시



시뮬레이션 2

**배당소득만 있으면 연간 1억3,000만원까지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

올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연 1억3,000만원까지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배당소득이 가액 기준으로 더 큰 이유는 이중과세 조정제도(Gross-up 제도) 때문이다. 국내 법인(해외 법인 제외)이 배당을 지급하는 재원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며 이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게 또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액(배당소득×10%)을 가산한 총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다시 공제(배당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국내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에게 평생



국내 법인(해외 법인 제외)이 배당을 지급하는 재원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며 이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게 또 소득세가 과세되기에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액(배당소득×10%)을 가산한 총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다시 공제(배당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표 2]에서 세액계산 예시를 참고해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표 2]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반영한 배당소득 세액계산 방식 예시

과세 대상 연금 월액 비교				비고
	①	배당소득	1억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
+	②	법인세 상당액	1,100만원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분 1억1,000만원 × 10%
=	③	배당소득 금액	1억4,100만원	
-	④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	⑤	과세표준	1억3,950만원	
=	⑥	산출 세액	2,920만원	6%부터 35%까지의 누진세율만 적용됨
-	⑦	배당세액공제	1,100만원	법인세 상당액(②) 모두 세액공제 한도 내 가정함
=	⑧	소득세액	1,820만원	
-	⑨	기납부세액	1,820만원	기원천징수액(1억3,000만원 × 14%)
=	⑩	추가 납부할 세액	0원	

※ [설명] 배당소득(①) 1억3,000만원에 배당지급 법인이 납부했을 것으로 가정한 세법상 법인세 상당액(②) 1,100만원을 가산해 법인세 납부 전 배당소득 금액(③) 1억4,100만원으로 만든다. 종합소득공제(④) 후 과세표준(⑤)에 누진소득세율을 곱해 2,920만원이라는 산출 세액(⑥)이 계산된다. 앞에서 배당소득에 가산한 법인세 상당액(②) 1,100만원 전액을 배당세액공제(⑦)로 다시 차감해주면 1,820만원이라는 소득세(⑧)가 나오나 이미 금융기관에서 1,820만원(=1억3,000만원×14%)이 원천징수(⑨)되었기에 추가 납부세액(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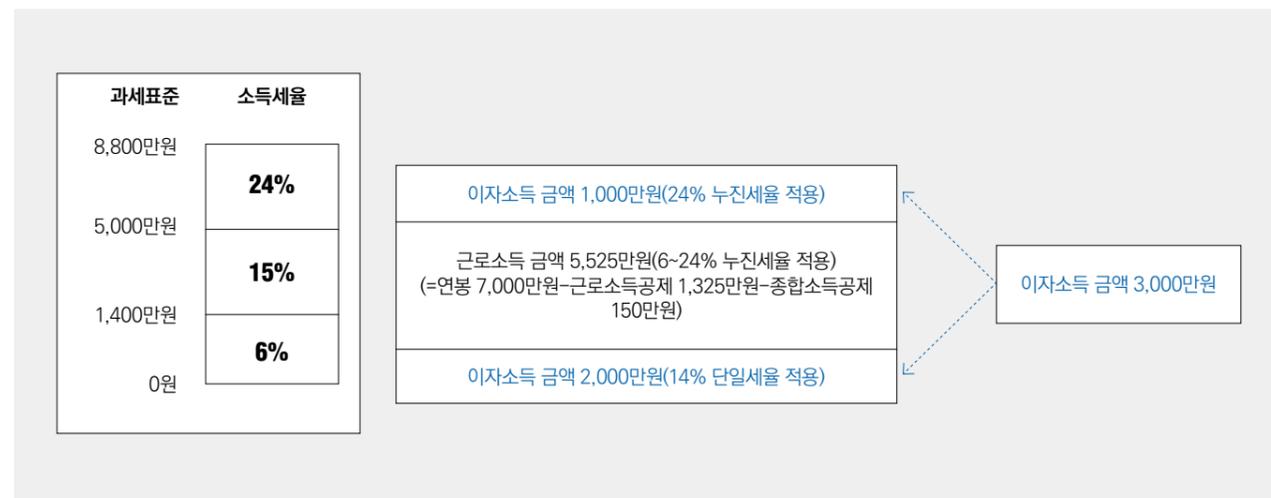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올해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표 3]에 해당하는 조합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합 5번과 같이 동일 연도에 이자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8,160만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 3]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금융소득 조합 (이자소득이 1,000만원씩 증가 가정)

조합	이자소득	배당소득
1	0	1억3,000만원
2	1,000만원	1억2,000만원
3	2,000만원	1억1,000만원
4	3,000만원	9,600만원
5	4,000만원	8,160만원
6	5,000만원	6,700만원
7	6,000만원	5,260만원
8	7,000만원	3,800만원
9	8,190만원	-

[그림 2]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율 적용 방식 예시



시뮬레이션 4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올해 근로소득 7,000만원과 이자소득 3,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3,0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된 14%(지방소득세 1.4%는 별도)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은 100만원(지방소득세 10만원은 별도)이다.

[그림 2]와 같이 이자소득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14%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 위에 합산되는 구조이므로 24% 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원천징수된 14%와의 차이인 10%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기타 유의 사항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아래의 이슈들도 발생된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가령 이자소득만 4,000만원이 있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해도 다음 연도 5월 중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숨겨진 다른 종합소득이 발견



2. 되어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등의 문제가 생긴다.
3. 본인이 다른 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정도 기여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연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족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 주어 과다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다음 연도 12월분부터 그다음 연도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피부양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인 세대원이었다면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자의 금융소득 정보를 가지고 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과 다른 점을 참고해볼 만하다.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하자

금융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무조건 불리해지지는 않지만 2,000만원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고객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모르고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①가입 단계부터 상품별 만기 분산(또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제도 활용), ②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 가입, ③예금 금액의 증여를 통한 인별 금융소득 분산, ④거래 금융기관 수 축소를 통한 소득 관리 등으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잘 관리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김성욱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 '이것' 빠지면 무효

바야흐로 동영상 세상이다. 과거와 달리 동영상 촬영이 자유로운 요즘, 유언으로 기록된 영상들은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

Writer: 김성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Photo: 프리픽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캠코더를 사용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녹화된 영상은 대개 주인공이 죽고 한참 지난 후 발견되거나 전달된다. 마지막 인사는 사랑의 고백일 때도 있고, 어머니 잘 모시고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라는 정도의 유언이나 덕담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산 분배를 선언해둔다면 어떻게 될까.

유언자의 진의 왜곡 가능성 차단

또한 요즘은 누구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언자의 영상이 그 음성과 함께 녹화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유언자의 진술이 제3자를 통해 촬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

유언은 내가 죽은 뒤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내 뜻에 따라 가족 등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다.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이뤄지지만, 유산의 승계와 분배에 내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언은 단순히 후손에게 남기는 덕담이 아니라 나의 노후, 사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유산의 분배를 통해 내가 살면서 추구했던 가치,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철학이 구현되도록 할 수 있다.

민법은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언이 갖춰야 할 격식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은 위조, 변조 방지 목적 외에 타인의 부추김이나 강압으로 유언자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종류가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 전부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의 내

“

유언은 내가 죽은 뒤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내 뜻에 따라 가족 등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다.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이뤄지지만, 유산의 승계와 분배에 내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언은 단순히 후손에게 남기는 덕담이 아니라 나의 노후, 사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

용과 형식에 따르되 유언자가 말로 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 형식의 유언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다른 관여자 없이 작성한 문서를 밀봉한 뒤 공증인에게 확인받는 방식의 유언이며, 구수증서는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다른 이가 받아 적은 문서다.

민법이 허용하는 5가지 유언 방식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민법이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같은 녹화 장치로 촬영된 영상은 서류가 필요한 나머지 네 가지 유언에 해당할 수 없고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만 인정될 여지가 있다.

유연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있어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민법은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취지, 그리고 성명과 연월일을 말해야 하고, 반드시 증인이 참여해 자신의 성명과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하다고 말해야 하며, 이것이 모두 녹음돼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녹음 유언의 필수 조건

- 유언 취지
- 성명
- 연월일
- 증인 참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자칫 녹음 파일이 지워질 수 있고 변조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유언자가 중병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힘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녹음 도구는

음향을 기록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음향과 영상이 함께 기록되는 녹화도 당연히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유언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빠짐없이 녹음돼 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는다. 녹화 당시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를 이용한 유언 역시 증인의 참여 등 법에서 정한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혼자 상속 의사를 녹화해 남기는 방식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는 7명의 자녀를 두고 2019년경 사망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신이 죽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과 차남에게만 나눠주고, 5명의 딸들에게는 장남이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의 말을 했고, 그 모습을 차남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

A와 차남은 이 동영상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앞서 본 것처럼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당시 현장에 있던 차남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어서 증인

이 될 자격이 없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유언은 필요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다.

스마트폰으로 남긴 유언의 한계

참고로 이 사례에서는 필요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즉, 유언이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그 유언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받을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A가 동영상 촬영 말미에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을 증여에 대한 청약으로 보고, 차남이 그에 대해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입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보게 되면, A와 차남 둘 사이에서는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의 “그럼 됐나?”라는 말은 혼잣말일 뿐 차남에게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입회했다고 해 승낙한 것이 될 수도 없으며, 차남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면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A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자녀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같은 녹음·녹화 장치를 이용해 유언자, 중병으로 임종을 앞둔 사람,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말을 녹화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녹음에 의한 유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

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진행하면서 당시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 또는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나 신분 행위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보강증거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견이나 상속, 재산 행위나 신분 행위의 유효성을 다투는 재판에 제출되는 영상은 변조 또는 편집의 가능성이 다른 영상보다 높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해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그래서 그 원본의 존재 및 편집, 변조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다툼 방지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이 효과적

추후 유언의 유효 여부를 두고 상속인을 포함한 관련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공증인이 유언에 관여하기 때문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우려가 적어 나중에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증서 보관까지 공증인이 맡아 주므로 분실이나 위조 등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탁월한 장점이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나 법률 해석의 경향은 나의 삶과 재산은 물론 죽음까지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유언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이 나의 사후에도 잘 전달되게 하고, 가족들이 남겨진 재산을 두고 더 이상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유언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언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장단점을 잘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5년 1월 17일(금)~2월 21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X-XS01(2명)



WON뱅크 바로가기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크(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크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214)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청담동) 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



TWO CHAIRS W 청담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W 부산



TWO CHAIRS W 압구정

TWO CHAIRS Exclusive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CE강남센터



TCE본점센터



TCE시그니처센터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증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전 여기서만 관리받아요”

당신의 모든 것에 집중하니까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어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예외 유약·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 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 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일 2024-1824(2024.02.23~2025.02.26)